

보험동향 2017년 가을호

Ⅰ 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권오경 (연구원)	
	국내경제	정인영 (연구원)	
	국내금융	이혜은 (연구원)	
Ⅰ 국내보험 동향	생명보험	이혜은 (연구원)	
	손해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정인영 (연구원)	
Ⅰ 해외보험 동향	미	국	이혜은 (연구원)
	영	국	권오경 (연구원)
	일	본	이소양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1
2. 국내경제 / 23
3. 국내금융 / 40

II. 국내보험 동향

1. 보험 총괄 / 51
2. 생명보험 / 57
3. 손해보험 / 75

III. 해외보험 동향

1. 미국 / 98
2. 영국 / 104
3. 일본 / 110
4. 중국 / 121

부록. 통계표 / 131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7년 2/4분기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2017년 2/4분기 미국(3.1%)과 중국(1.7%), 일본(2.5%), 유로지역(2.6%)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미국 1.9%p, 중국 0.4%p, 일본 1.3%p, 유로지역 0.4%p)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며 상승함
 -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과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6.9%)은 투자 둔화에도 수출 증가로 성장세가 유지됨
 - 일본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통화정책 완화 및 투자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4.2%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일본을 제외하고 동반 상승하며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1.5%p 하락한 0.8%를 기록하고, 국제유가(두바이 48.5, WTI 50.0)와 원자재 가격(CRB 상품지수 188.3)은 하락함
- 2017년 2/4분기 주요국 국제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발표에도 크게 변하지 않음
-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의 세제개편 지연, 중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17년 2/4분기 미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며 전분기보다 1.9%p 상승한 3.1%(연율)을 기록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로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7%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 경제성장률은 내수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1.3%p 상승한 2.5%(연율)을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통화정책 완화 및 투자회복으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2.6%(연율)을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¹⁾	3.4	3.2	n.a.	n.a.		n.a.		n.a.	
선진국 ¹⁾	2.2	1.7	n.a.	1.5		2.1		2.1	
신흥국 ¹⁾	4.3	4.3	n.a.	4.2		4.2		5.2	
미국 ²⁾	2.9	1.5	0.5	0.6	2.2	2.8	1.8	1.2	3.1
중국 ³⁾	6.9	6.7	1.7	1.3	1.9	1.8	1.7	1.3	1.7
일본 ⁴⁾	1.1	1.0	-0.9	2.1	2.0	0.9	1.6	1.2	2.5
유로지역 ⁵⁾	2.1	1.8	1.8	2.0	1.4	1.8	2.6	2.2	2.6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7.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9)

3) 중국 국가통계국(2017. 7)

4) 일본 내각부(2017. 9)

5) Eurostat(2017. 10)

- 2017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미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99.7을,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4를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1임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4 상승한 99.5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²⁾	99.8	99.5	99.5	99.4	99.4	99.5	99.7	99.8	100.0
선진국 ³⁾	100.1	99.6	99.8	99.6	99.6	99.6	99.8	100.0	100.0
미국	100.1	99.6	99.4	99.1	99.1	99.1	99.4	99.7	99.7
유로지역	100.3	99.2	100.3	100.1	99.9	99.9	100.0	100.2	100.4
일본	100.2	99.7	99.9	99.7	99.6	99.7	99.9	100.1	100.1
중국	99.7	99.2	99.3	99.2	99.2	99.2	99.1	99.1	99.5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4.2%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p 상승한 3.4%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p 하락한 5.2%를 나타냄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1.9	1.4	1.3	0.6	1.6	1.1	2.2	4.0	4.2
선진국	2.7	1.5	1.6	1.3	1.3	1.5	1.7	2.1	3.4
신흥국	0.8	1.2	0.9	-0.4	2.0	0.6	2.8	6.6	5.2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흥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하락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1.5%p 하락한 0.8%를,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2.5%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3.9, 4.6 하락한 48.8, 47.9이고, CRB 상품지수²⁾는 10.4 하락한 179.5를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6			2017			2016			2017	
	연간	3/4	4/4	1/4	2/4		연간	3/4	4/4	1/4	2/4
세계	n.a.	n.a.	n.a.	n.a.	n.a.	두바이 현물지수	42.1	43.0	48.5	52.7	48.8
선진국	1.0	1.4	1.7	2.3	0.8	WTI 현물지수	44.5	44.8	50.0	52.5	47.9
신흥국	3.5	3.4	2.8	3.0	2.5	CRB 상품지수 ²⁾	180.6	184.1	188.3	189.9	179.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2017. 10);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7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1.9%p 상승한 3.1%를 기록함
 - 민간소비(3.3%)와 민간투자(3.9%)는 전분기대비 증가하며 경기확장세가 지속됨
 - 수출(3.5%)과 수입(1.5%) 증가율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7년 2/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0.3%)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118.1)는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1.4%), 설비가동률(76.6), 경기선행지수(127.2)는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5.8)는 하락함
 - 실업률(4.4%)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취업자 수(56만 2천 명)는 전분기대비 증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1.9%)과 생산자물가 상승률(3.0%)은 모두 전분기에 비해 하락함
- 2017년 2/4분기 국제금리(3년물 1.46%, 10년물 2.26%)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1.9%p 상승한 3.1%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p 상승한 3.3%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5.1%p 상승하며 3.9% 증가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8%p 하락한 3.5%이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8%p 하락한 1.5%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0.2%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2.9	1.5	0.5	0.6	2.2	2.8	1.8	1.2	3.1
민간소비	3.6	2.7	2.7	1.8	3.8	2.8	2.9	1.9	3.3
재화	4.6	3.7	2.8	2.1	6.0	3.2	4.7	0.7	5.4
서비스	3.2	2.3	2.6	1.7	2.8	2.7	2.1	2.5	2.3
민간투자	5.2	-1.6	-6.2	-4	-2.7	2.4	8.5	-1.2	3.9
설비	2.3	-0.6	-5.1	-4.0	3.3	3.4	0.2	7.2	6.7
주택	10.2	5.5	7.3	13.4	-4.7	-4.5	7.1	11.1	-7.3
수출	0.4	-0.3	-2.3	-2.6	2.8	6.4	-3.8	7.3	3.5
수입	5.0	1.3	0.0	-0.2	0.4	2.7	8.1	4.3	1.5
정부지출	1.4	0.8	0.3	1.8	-0.9	0.5	0.2	-0.6	-0.2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합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9), BEA

〈소비부문〉

■ 2017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0.3%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0.6 상승한 118.1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감소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4.8%p 하락한 -5.7%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5.0 상승한 199.0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2.6	3.0	0.3	-0.1	1.5	1.0	1.5	1.0	0.3	0.3	-0.2
소비자신뢰지수 ²⁾	98.0	99.8	96.0	96.0	94.8	100.7	107.8	117.5	118.1	120.0	120.4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10.6	6.3	-3.2	2.6	0.4	-0.7	8.6	-0.9	-5.7	-2.2	-0.8
주택가격지수 ⁴⁾	179.3	188.7	182.5	183.2	188.2	191.4	192.0	194.0	199.0	202.0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7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³⁾는 하락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상승한 1.4%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보다 0.8 상승한 76.6을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1.2 하락한 55.8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1.3 상승한 127.2를 기록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0.7	-1.2	-0.9	-0.3	-0.2	0.2	0.2	0.4	1.4	0.4	-0.9
설비가동률 ²⁾	77.7	76.3	76.0	75.8	75.7	75.8	75.8	75.8	76.6	76.9	76.1
ISM제조업PMI	51.4	51.5	48.7	50.0	51.5	51.1	53.3	57.0	55.8	56.3	58.8
경기선행지수 ³⁾	121.8	123.3	122.8	122.4	122.9	123.5	124.2	125.9	127.2	128.3	128.8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Bloomberg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

- 2017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4.4%를 기록하고, 포괄적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8.5%를 나타냄
 - 비농업취업자는 56만 2,000명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규모보다 6만 4,000명이 증가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4만 2,000명으로 전분기보다 4,000명 감소함
- 2017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1.9%,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8%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5%p 하락한 3.0%,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2%p 상승한 1.9%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¹⁾	5.3	4.9	5.0	4.9	4.9	4.9	4.7	4.7	4.4	4.3	4.4
포괄적 실업률(u-6) ²⁾	10.4	9.6	9.9	9.8	9.7	9.7	9.3	9.2	8.5	8.6	8.6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271.3	224.0	83.2	58.8	49.3	71.6	44.3	49.8	56.2	13.8	16.9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27.8	26.3	26.9	27.2	26.8	25.8	25.3	24.6	24.2	24.2	23.7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0.1	1.3	0.5	1.1	1.0	1.1	1.8	2.5	1.9	1.7	1.9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8	2.2	2.0	2.2	2.2	2.2	2.1	2.2	1.8	1.7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3.3	-1.0	1.0	-1.8	-1.9	-1.3	1.0	3.5	3.0	2.2	2.9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2.0	1.5	1.8	1.6	1.6	1.3	1.6	1.7	1.9	1.8	1.7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Bloomberg

〈국채금리〉

■ 2017년 2/4분기 국채금리(3년물, 1.46%, 10년물, 2.26%)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bp 하락한 1.46%,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8bp 하락한 2.26%임

○ FOMC는 예상대로 2017년 6월 정책금리를 인상했으며 연내 자산축소 계획도 공개함⁴⁾
 - 연방준비위원회의 대차대조표 정상화 계획은 최초 국채 60억 달러 및 MBS 40억 달러를 월별 만기상환 한도로 설정하고 최종한도가 각각 300억 달러 및 200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분기마다 60억 달러, 40억 달러씩 상향될 예정임⁵⁾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 3년물	1.01	1.00	1.13	1.03	0.91	0.84	1.23	1.51	1.46	1.54	1.47
국채 10년물	2.13	1.84	2.18	1.92	1.74	1.56	2.13	2.44	2.26	2.31	2.21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4) 김윤경 · 권도현 · 김효진(2017. 6. 15), “6월 FOMCI, 금리인상, 연내 자산축소 계획 발표”, 국제금융센터

5) 자본시장연구원(2017. 9), 『자본시장리뷰 2017 가을호』

나. 중국경제

- 2017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7%, 전년 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9%로 나타남
- 2017년 2/4분기 중국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0.8%)은 전분기보다 하락, 소비자신뢰지수(114.8)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6.9%)과 구매자관리지수(51.4)는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4%)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5.8%)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7년 2/4분기 중국 금융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제 금리(3년물 4.16%, 10년물 4.50%)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6.862위안/달러)은 전분기대비 하락하며 달러대비 강세를 보임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7%, 전년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9%로 나타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8.7%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8.6%를 나타냄
 - 미국, 유로지역, 일본에 대한 선진국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신흥국 수출은 둔화됨⁶⁾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7%p 감소한 14.2%를 기록함

6) 이상원 · 이치훈(2017. 7. 17), “2017년 2분기 성장률과 하반기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¹⁾	6.9	6.7	1.7 (6.8)	1.3 (6.7)	1.9 (6.7)	1.8 (6.7)	1.7 (6.8)	1.3 (6.9)	1.7 (6.9)
고정자산투자 ²⁾	11.4	9.0	10.1	10.5	9.7	8.1	8.2	8.7	8.7
수출 증가율 ³⁾	-1.1	-7.6	-5.2	-11.9	-6.3	-6.9	-5.2	7.0	8.6
수입 증가율 ³⁾	-14.2	-5.6	-11.6	-13.9	-6.9	-4.1	2.3	24.9	14.2

주: 1) 전분기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7. 7); Bloomberg

〈소비부문〉

■ 2017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0.8%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2.8 상승한 114.8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0.6	10.4	11.1	10.5	10.2	10.5	10.6	10.9	10.8	10.4	10.3
소비자신뢰지수	105.9	104.4	103.9	102.8	101.2	105.7	108.1	112.0	114.8	114.6	114.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7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6.9%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51.4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6.0	6.2	5.9	6.8	6.1	6.1	6.1	7.6	6.9	6.4	6.0
제조업PMI ²⁾	49.9	51.6	49.7	49.5	50.1	50.2	51.4	51.6	51.4	51.4	51.7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 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⁷⁾ 및 물가〉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4%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5.8%를 기록함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4	2.0	1.5	2.1	2.1	1.7	2.2	1.4	1.4	1.4	1.8
생산자물가 상승률	-5.2	-1.3	-5.9	-4.8	-2.9	-0.8	3.3	7.4	5.8	5.5	6.3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7)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국채금리 및 환율〉

■ 2017년 2/4분기 금융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대비 하락하며 달러대비 강세를 시현함⁸⁾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와 동일한 4.16%, 국채 10년물 금리는 25bp 상승한 4.50%임

○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0.4% 하락한 6.862위안/달러임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 3년물	3.28	3.34	3.39	3.90	3.34	2.86	3.25	4.16	4.16	3.84	3.70
국채 10년물	3.50	3.56	3.52	3.83	3.68	3.24	3.48	4.25	4.50	4.24	3.99
위안/달러	6.284	6.644	6.392	6.539	6.533	6.667	6.833	6.889	6.862	6.773	6.671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8) 이상원 · 이치훈(2017. 7. 17), “2017년 2분기 성장률과 하반기 전망”, 국제금융센터

다. 일본경제

- 2017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공공투자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0.3%p 상승한 0.6%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일본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2.1%)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0.7%)은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43.4)는 전분기와 동일함
 -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1.1%)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4.7%)은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 실업률(2.9%)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유효구인배율(1.49배)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7년 2/4분기 국제금리(3년물 -0.15%, 10년물 0.04%)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현상유지 결정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공공투자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0.3%p 상승한 0.6%를 기록함⁹⁾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임금 및 고용여건 개선, 주가 상승의 자산효과 등으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0.8%를 기록함
 - 주택투자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와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1.3%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와 설비가동률 상승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5.6%p 상승한 6.0%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4%p 하락한 -0.5%를 기록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4%를 기록함

9) 손영환(2017. 8. 14), “일본, 2분기 성장률 내수 주도로 연율 4.0% 기록”, 국제금융센터 참고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1	1.0	-0.2 (-0.9)	0.5 (2.1)	0.5 (2.0)	0.2 (0.9)	0.4 (1.6)	0.3 (1.2)	0.6 (2.5)
민간소비	-0.3	0.4	-0.6	0.3	0.1	0.4	0.1	0.4	0.8
설비투자	1.1	1.3	0.1	-0.1	1.4	-0.3	2.0	0.5	0.5
주택투자	-1.6	5.6	-0.8	1.0	3.2	2.8	0.2	1.0	1.3
공공투자	-2.1	-3.0	-1.2	0.0	-0.6	-0.9	-2.4	0.4	6.0
수출	2.9	1.2	-0.4	0.0	-0.9	2.1	3.1	1.9	-0.5
수입	0.8	-2.3	-0.3	-2.0	-1.2	-0.2	1.4	1.3	1.4
정부지출	1.7	1.3	0.7	1.4	-1.3	0.2	0.0	-0.1	0.4

주: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7. 9)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2/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9%p 상승한 2.1%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0.7%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43.4로 집계됨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2.1%p 하락한 1.1%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3.3%p 감소한 -4.7%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1.2	-0.2	0.0	-0.9	0.2	1.6	1.9	0.2	2.1	-0.8	2.1
소매판매 증가율 ²⁾	-0.4	-0.6	-0.2	-1.3	0.0	0.5	1.5	-0.2	0.7	1.1	-1.7
소비자신뢰지수 ³⁾	41.3	41.7	42.2	41.3	41.2	42.1	42.2	43.4	43.4	43.8	43.3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1.9	6.4	-0.7	5.5	4.9	7.1	7.9	3.2	1.1	-2.3	-2.0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4.1	1.7	2.9	4.2	-6.4	5.5	0.3	-1.4	-4.7	-19.3	6.2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7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유효구인배율¹⁰⁾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2.9%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임

○ 유효구인배율은 1.49배로 전분기대비 높아지며 상승세가 계속됨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4%임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2%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3.4	3.1	3.3	3.2	3.2	3.0	3.1	2.9	2.9	2.8	2.8
유효구인배율 ¹⁾	1.20	1.40	1.25	1.30	1.35	1.37	1.40	1.44	1.49	1.51	1.52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0.8	-0.1	0.3	0.0	-0.4	-0.5	0.3	0.3	0.4	0.4	0.7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1.0	0.3	0.8	0.6	0.5	0.2	0.1	-0.1	-0.2	-0.1	0.0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10)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7년 2/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기존 통화정책¹¹⁾ 유지 결정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bp 상승한 -0.15%,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bp 하락한 0.04%임

○ 일본은행(BOJ)은 2017년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존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 3년물	0.02	-0.20	0.01	-0.13	-0.24	-0.24	-0.19	-0.18	-0.15	-0.08	-0.10
국채 10년물	0.36	-0.04	0.31	0.07	-0.11	-0.12	-0.04	0.08	0.04	0.08	0.05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1)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대로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임

라. 유로지역¹²⁾경제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은 통화정책 완화 및 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7%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10.0)와 산업생산 증가율(1.2%)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실업률(5.9%)은 전 지역에서(북유럽 6.4%, 동유럽 5.8%, 남유럽 14.8%) 전분기보다 하락함
 - 주요국(1.8%)과 남유럽(1.7%)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북유럽(1.4%)과 동유럽(1.3%)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7년 2/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독일 3년물 -0.67%, 독일 10년물 0.31%, 영국 3년물 0.21%, 영국 10년물 1.06%)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7%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스페인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9%를 나타낸 반면, 독일, 이탈리아는 각각 전분기대비 0.1%p, 0.2%p 하락한 0.6%, 0.3%를 나타내었고, 프랑스, 영국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0.5%, 0.3%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증가한 0.5%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8%p 상승한 2.2%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9%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1.5%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0.5%를 기록함

12)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2.1	1.8	0.5 (1.8)	0.5 (2.0)	0.3 (1.4)	0.4 (1.8)	0.6 (2.6)	0.6 (2.2)	0.7 (2.6)
민간소비	1.8	2.0	0.5	0.7	0.3	0.4	0.5	0.4	0.5
고정자본투자	3.3	4.5	1.8	-0.4	2.0	0.7	1.8	-0.6	2.2
수출	6.4	3.3	1.0	0.5	1.1	0.6	1.5	1.3	0.9
수입	6.7	4.7	1.6	0.5	1.9	0.5	1.9	0.4	1.5
정부지출	1.3	1.8	0.3	0.8	0.3	0.2	0.4	0.2	0.5

주: 1)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7. 10)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10.0로 전분기보다 2.0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1.0%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2.7로 부정적 전망이나 개선되는 모습임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p 상승한 1.2%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유로 지역 ESI ²⁾	104.2	104.8	106.2	103.9	104.2	104.2	106.9	108.0	110.0	111.3	111.9
소매판매 증가율 ³⁾ (%)	3.1	2.2	0.0	0.7	0.3	0.5	0.9	0.3	1.0	-0.3	-0.5
소비자신뢰지수 ⁴⁾	-6.3	-7.8	-6.4	-8.4	-7.9	-8.3	-6.5	-5.5	-2.7	-1.7	-1.5
산업생산 증가율 ⁵⁾ (%)	2.1	1.4	0.0	0.8	0.0	0.3	1.0	0.1	1.2	0.3	1.4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 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¹³⁾〉

■ 2017년 2/4분기 유럽지역의 실업률은 전 지역에서 전분기대비 감소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5.9%를 기록함
-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1%p, 0.3%p, 0.8%p 하락한 6.4%, 5.8%, 14.8%로 나타남

■ 2017년 2/4분기 주요국과 남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는 전분기보다 하락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8%임
- 권역별로 보면, 북유럽과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보다 0.2%p, 0.3%p 하락한 1.4%, 1.3%이고, 남유럽은 전분기와 동일한 1.7%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6년 4/4	6.2	6.6	6.5	16.1	1.0	1.6	0.4	0.5
2017년 1/4	6.0	6.5	6.1	15.6	1.8	1.6	1.6	1.7
2017년 2/4	5.9	6.4	5.8	14.8	1.8	1.4	1.3	1.7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0)

13)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독일	실질 GDP	1.7	1.9	0.4	0.6	0.5	0.3	0.4	0.7	0.6
	민간소비	1.7	2.1	0.6	0.6	0.2	0.4	0.6	0.4	0.8
	고정자본투자	1.5	3.1	2.3	1.1	-2.2	2.6	1.8	-0.8	2.0
	수출	5.2	2.6	-0.5	1.0	1.3	-0.2	1.3	1.6	0.7
	수입	5.6	3.9	0.7	1.7	-0.2	0.7	2.5	0.4	1.7
프랑스	실질 GDP	1.1	1.2	0.3	0.6	-0.1	0.2	0.5	0.5	0.5
	민간소비	1.4	2.2	0.2	1.3	0.4	-0.1	0.6	0.1	0.3
	고정자본투자	1.0	2.8	3.1	-0.7	-2.8	3.3	0.1	4.4	-1.4
	수출	4.3	1.8	0.7	0.4	-0.2	0.9	1.2	-0.8	2.4
	수입	5.7	4.2	2.5	0.6	-0.9	2.7	0.8	1.2	0.3
이탈리아	실질 GDP	1.0	0.9	0.3	0.3	0.1	0.3	0.4	0.5	0.3
	민간소비	2.0	1.5	0.3	0.3	0.2	0.3	0.2	0.6	0.2
	고정자본투자	1.9	2.8	0.3	-0.5	0.7	0.8	1.2	-1.5	3.2
	수출	4.4	2.4	1.9	-0.9	1.8	1.0	2.1	1.7	0.0
	수입	6.7	3.1	1.7	-1.0	2.3	1.3	2.5	0.8	1.2
스페인	실질 GDP	3.4	3.3	0.9	0.7	0.8	0.7	0.7	0.8	0.9
	민간소비	3.0	3.0	0.5	1.0	0.6	0.8	0.4	0.6	0.8
	고정자본투자	6.5	3.3	1.4	-0.2	1.5	-0.8	1.2	2.3	0.1
	수출	4.2	4.8	0.8	1.4	2.1	-0.5	1.5	3.4	0.0
	수입	5.9	2.7	-0.2	0.8	1.9	-1.7	0.6	4.3	-0.8
영국	실질 GDP	2.3	1.8	0.7	0.2	0.5	0.4	0.6	0.3	0.3
	민간소비	2.6	2.8	0.4	0.7	0.9	0.5	0.4	0.3	0.2
	고정자본투자	2.8	1.3	5.7	-1.4	-3.9	8.1	-8.4	2.6	-1.8
	수출	5.0	1.1	1.9	-2.4	2.5	-1.9	5.4	-0.3	1.7
	수입	5.1	4.3	3.2	-0.1	0.8	3.0	-0.7	1.0	0.2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0)

〈국채금리〉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평균 국채금리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bp 상승한 -0.67%,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bp 하락한 0.31%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하락한 0.21%,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22bp 하락한 1.06%임
- ECB는 2017년 9월 통화정책 정상화 로드맵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함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독일국채 3년물	-0.20	-0.58	-0.68	-0.44	-0.53	-0.66	-0.68	-0.71	-0.67	-0.49	-0.59
독일국채 10년물	0.53	0.14	0.19	0.32	0.12	-0.07	0.19	0.36	0.31	0.54	0.42
영국국채 3년물	0.85	0.39	0.23	0.60	0.57	0.16	0.23	0.22	0.21	0.37	0.25
영국국채 10년물	1.82	1.22	1.25	1.56	1.37	0.72	1.25	1.28	1.06	1.25	1.10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 2017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7%, 전분기대비 0.6%를 기록함
 - 민간소비(2.3%)와 설비투자(17.2%)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투자(8.0%)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
- 2017년 2/4분기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정체 및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에 그침
 - 설비투자는 IT 업종 투자 확대로 17.2%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SOC 예산 감축 및 착공 감소 영향 확대로 8.0% 증가에 그침
 - 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0.5%)의 재고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2.3%)도 민간소비 관련 업종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7% 증가에 그침
 - 총취업자 수는 수출 증가 및 건설업 일용직 고용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8%p 상승한 61.2%,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9%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및 신선식품 공급 감소 등에 따른 공급측 상승압력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분기대비 12.0 상승한 106.8을 기록함
 - 수출은 주력품목의 단가 상승 및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6.7%(1,471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자본재 중심으로 18.8%(1,179억 달러)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9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은 1.0% 감소함
- 2017년 2/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1.3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 2017년 2/4분기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로 수출과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소비와 생산 증가세 둔화로 경기회복세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함

가.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국의 사드 보복과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출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로는 0.6% 증가함¹⁴⁾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거주자 국외소비 중심으로 2.3% 증가함(〈표 25〉 참조)
- 설비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 투자를 중심으로 17.2% 증가함(〈표 26〉 참조)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하였으나 건물건설 중심으로 8.0% 증가함(〈표 26〉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투자 중심으로 2.6%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및 기계류가 증가하였으나 비거주자 국내소비 감소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입은 기계류 및 정밀기기 증가로 6.4% 증가함¹⁵⁾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3.0 (1.3)	3.2 (0.7)	2.8	2.9 (0.5)	3.4 (0.9)	2.6 (0.5)	2.4 (0.5)	2.8	2.9 (1.1)	2.7 (0.6)
민간소비	2.2	3.4	2.2	2.3	3.5	2.7	1.5	2.5	2.0	2.3
설비투자	6.0	3.1	4.7	-4.6	-2.9	-3.9	2.0	-2.3	14.4	17.2
건설투자	7.5	9.6	6.6	9.0	10.6	11.2	11.6	10.7	11.3	8.0
지식생산물투자	1.4	2.3	1.8	1.0	2.7	2.7	2.6	2.3	2.7	2.6
수출	-0.4	1.7	-0.1	1.3	2.6	3.4	1.2	2.1	3.9	0.0
수입	2.0	5.0	2.1	3.4	4.8	6.5	3.3	4.5	9.9	6.4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4) 국회예산정책처(2017. 9),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1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7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고, 7월에는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0.8% 증가에 그침¹⁶⁾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표 29〉 참조)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정체 및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소비 증가를 제약함

○ 2017년 2/4분기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른 더위,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함

- 7월에는 지난해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¹⁷⁾로 인한 승용차 판매 증가(10.8%)와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등 가전제품 판매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함¹⁸⁾

- 8월에는 승용차 판매 증가(14.0%)가 지속되었으나 휴대폰 신제품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한 컴퓨터 및 통신기기 판매 부진으로 전월보다 낮은 5.6% 증가에 그침¹⁹⁾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함

- 7월과 8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4%, 1.7% 감소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에 그침

-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1.1% 감소함

16) 국민계정상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유는 순해외소비(거주자 국외 소비지출 -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17년 2/4분기 중 5월 황금연휴로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은 감소하였음(한국개발연구원(2017. 8), “KDI 경제동향”)

17)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16년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2016년 7월(-11.6%)과 8월(-5.8%)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였음

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31), “17. 7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한국개발연구원(2017. 9), “KDI 경제동향”

1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29), “17.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한국개발연구원(2017. 10), “KDI 경제동향”

〈표 25〉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민간소비	2.3	3.5	2.7	1.5	2.5	2.0	2.3		
소매판매	5.0	5.9	3.5	2.5	4.3	1.9	1.7	3.5	0.8
내구재	6.4	11.1	1.1	0.1	4.5	3.1	4.4	11.8	5.6
* 승용차	8.5	16.5	-9.8	-3.6	2.5	2.6	-5.3	10.8	14.0
준내구재	2.3	4.4	3.5	0.4	2.5	-1.4	-2.1	-2.4	-1.7
비내구재	5.3	3.9	4.9	5.0	4.8	2.6	1.6	1.0	-1.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2/4분기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IT 부문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함

○ 2017년 2/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도입 등 기계류 투자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상승함

- 7월과 8월 설비투자지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디스플레이 등 기계류 투자가 이어지며 각각 전년동월대비 25.1%, 13.2%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²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수요 증가 지속 전망과 정부의 4차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²¹⁾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함

- 7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공공부문 및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 모두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함²²⁾

- 8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에서 큰 폭으로 늘어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함²³⁾

20)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1) 한국은행(2017. 7), 『경제전망보고서』

22) 통계청 보도자료(2017. 8. 31), “2017년 7월 산업활동동향”

23)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9), “2017년 8월 산업활동동향”

〈표 26〉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설비투자	-4.6	-2.9	-3.9	2.0	-2.3	14.4	17.2		
설비투자지수	-7.6	0.6	-4.7	5.9	-1.3	18.1	17.7	25.1	13.2
기계류	-13.0	-7.6	0.4	12.0	-2.2	24.5	34.4	32.6	15.3
운송장비	8.3	20.9	-15.7	-6.1	0.9	2.5	-13.5	7.8	7.3
국내기계수주 ³⁾	-0.6	-3.0	3.3	16.0	3.8	29.0	28.5	38.1	38.1
건설투자	9.0	10.6	11.2	11.6	10.7	11.3	8.0		
건설기성(불변)	13.2	15.8	14.5	17.7	15.4	17.9	13.6	13.2	8.1
건축	22.9	27.1	23.2	28.8	25.7	26.8	22.9	22.3	18.2
토목	-3.1	-3.2	-2.3	-1.9	-2.6	-1.0	-7.0	-9.1	-17.0
국내건설수주(경상)	13.9	-6.7	1.3	26.0	8.4	3.6	16.8	-29.5	-3.4
건축	13.5	1.7	3.6	39.7	14.5	-5.0	7.9	-29.1	0.9
토목	15.1	-32.4	-6.4	-6.8	-9.4	31.0	57.2	-31.3	-14.9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SOC 예산 감축 및 2016년 이후 건축착공면적 감소의 영향으로²⁴⁾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며 전년동기대비 8.0% 증가에 그침

○ 건설기성(불변)²⁵⁾은 토목 부문 부진이 이어졌으나 민간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13.6% 증가함

- 7월 건설기성은 연말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둔 민간주택 분양·착공 증가가 반영되어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함²⁶⁾

- 8월 건설기성은 잦은 강수 등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토목 부문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8.1% 증가에 그침²⁷⁾

24) 한국은행(2017. 9. 7), 『조사통계월보』, 2017년 8월호

25)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6) 국회예산정책처(2017. 9), 『NABO 경제동향&이슈』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발전·통신 등 토목 부문이 개선되어 16.8% 증가함
 - 7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부문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29.5% 감소함
 - 8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 부문이 0.9% 증가에 그친 가운데 토목 부문의 감소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함

〈산업생산〉

- 2017년 2/4분기 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의 재고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민간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에 그쳤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2.6% 증가함
 - 2017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재고조정과 설비보수 등으로 반도체와 석유정제 부문이 조정을 받으며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침²⁸⁾
 - 7월 광공업 생산은 ICT 부문의 조정이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
 - 8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증가,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²⁹⁾
 - 2017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시장 호조, 주택매매거래 증가 등으로 금융보험업(6.6%), 부동산 및 임대업(5.7%)이 확대되었으나 도소매업(0.4%), 숙박 및 음식점업(△3.1%) 등의 부진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에 그침³⁰⁾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3.9%)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도소매업(1.4%), 부동산 및 임대업(5.8%)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1.2%)이 증가 전환하였으나 도소매업(0.5%), 숙박 및 음식점업(△3.9%)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

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29), “17.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28), “17. 6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29), “17.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28), “17. 6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전산업 생산 ³⁾	2.1	3.2	3.0	3.5	3.0	3.9	2.7	2.0	2.6
광공업	-0.3	0.7	0.5	2.8	1.0	3.7	0.5	-0.2	2.7
제조업	-0.5	0.9	0.6	2.9	1.0	3.8	0.4	-0.4	2.9
자동차	0.0	-3.5	-10.4	1.8	-2.8	0.4	-1.0	0.8	14.8
ICT	0.1	7.0	8.3	4.1	5.0	8.6	-2.2	-4.3	5.3
서비스업	2.8	3.5	3.6	2.1	3.0	2.6	2.3	2.2	2.1
도매 및 소매업	2.9	4.1	2.7	2.2	3.0	1.2	0.4	1.4	0.5
운수업	1.8	4.1	3.5	-1.5	1.9	-0.3	0.0	-0.3	1.2
숙박 및 음식점업	-0.6	1.8	1.0	-3.9	-0.5	-4.0	-3.1	-3.9	-3.9
금융 및 보험업	6.4	4.2	6.5	6.5	5.9	6.9	6.6	5.4	4.9
부동산 및 임대업	3.7	-0.2	3.7	2.3	2.3	5.6	5.7	5.8	5.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7년 2/4분기 총취업자 수는 수출 증가, 건설업 일용직 고용 확대,³¹⁾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³²⁾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61.2%, 실업률은 3.9%를 기록함
- 7월 총취업자 수는 제조업 인력 수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용직 중심의 건설업 고용 둔화, 전년 동월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 0.8% 증가에 그침³³⁾

31) 건설업은 주택 준공물량 증가로 인해 일용직 중심의 고용 증가세가 이어졌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12), “17. 6월 고용동향”)

32) 정년연장, 은퇴연령층의 노동시장진류 등의 영향으로 50대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
- 5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6 (1/4) 2.9, (2/4) 2.8, (3/4) 3.3, (4/4) 4.1, '17 (1/4) 4.5, (2/4) 4.0 ((한국은행(2017. 7), 『경제전망보고서』; 통계청)

3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 2017년 2/4분기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구직활동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³⁴⁾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며, 7월과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4%, 0.5% 감소함³⁵⁾
 - 2017년 2/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61.2%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는 61.5%를 기록한데 이어 8월에는 61.1%를 나타냄
 - 2017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9%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는 3.5%, 8월에는 3.6%를 기록함
 - 청년실업률은 10.4%로 2분기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7월에는 9.3%를 나타냈고, 8월에도 9.4%로 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함³⁶⁾
- 2017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공업의 경우 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 증가 및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미약한 내수회복세로 자영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 증가세가 둔화됨³⁷⁾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고,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7%, 1.3% 증가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³⁸⁾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하였으나, 7월과 8월에는 수출 증가 및 전년 동월 낮은 기저로 인해 각각 전년동월대비 1.2%, 0.7% 증가세로 전환함³⁹⁾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둔화되어 1.9% 증가에 그침
 -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성과 주택 준공물량 증가에 따른 일용직 중심의 고용 확대가 지속되었으나, 내수 부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졌고, 운수업 등은 감소폭이 확대됨⁴⁰⁾

34) 청년 인구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통계청): (17. 1) △5.2, (2) △5.6, (3) △6.4, (4) △6.8 (5) △7.3 (6) △7.9 (7) △8.3 (8) △8.6

3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36) 2017년 8월 기준, 실업자 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으로계층(잠재적 실업자)을 반영한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1.0%p)으로 상승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6. 14), “17. 5월 고용동향”

38) 제조업 포함

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 7월과 8월에는 잦은 강수 등 기상 여건 악화로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었
고, 그 외 기타서비스업도 내수 부진, 자영업자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각각
1.1%, 0.8% 증가에 그침⁴¹⁾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¹⁾	1.1	1.1	1.2	1.2	1.2	1.4	1.4	1.2	0.8
청년취업자 ¹⁾	1.0	2.1	1.5	0.2	1.2	0.3	0.4	-0.4	-0.5
고용률 ²⁾	59.1	60.8	61.1	60.7	60.4	59.4	61.2	61.5	61.1
실업률 ³⁾	4.3	3.8	3.6	3.2	3.7	4.3	3.9	3.5	3.6
청년 ⁴⁾ 실업률 ³⁾	11.3	10.3	9.3	8.4	9.8	10.8	10.4	9.3	9.4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4.9	-5.7	-5.4	-1.0	-4.4	-2.4	0.3	1.7	1.3
광공업	3.0	1.0	-1.5	-2.3	0.0	-2.4	-0.4	1.2	0.7
제조업	2.9	0.8	-1.6	-2.4	-0.1	-2.5	-0.5	1.1	0.5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1	1.7	2.3	2.1	1.8	2.5	1.9	1.1	0.8
건설업	-0.5	-1.5	2.1	4.7	1.2	7.6	8.6	5.4	1.8
도·소매, 음식, 숙박	-0.9	0.7	1.8	1.4	0.7	2.2	0.9	-0.5	-0.2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5	0.2	0.6	0.5	0.7	-0.7	-1.4	-3.2	-1.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5	3.4	3.3	2.5	2.9	2.8	2.2	2.7	2.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7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및 신선식품 공급 감소에 따른 공급측 상승 압력으
로⁴²⁾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2.6%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상품물가는 연초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생산시설 복구 지연 등으로
축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국제유가 상승 및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
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1.8% 상승함⁴³⁾

4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12), “17. 6월 고용동향”

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42) 한국은행(2017.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4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4), “2017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 7월과 8월 중 상품물가는 폭염·폭우 등으로 작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였고 전기·수도·가스가 지난해 하계 전기요금 인하⁴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상승함에 따라 각각 전년동월대비 2.7%, 3.6% 상승함⁴⁵⁾

○ 2017년 2/4분기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개인서비스가격 중심으로 2.0%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1.9%, 1.8%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2.0 상승한 106.8을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함

○ 7월에는 전달보다 0.1 상승한 111.2로 '11년 1월(11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8월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전달보다 1.3 하락한 109.9를 나타냄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심리지수 ²⁾	99.3	99.9	101.6	97.3	99.5	94.8	106.8	111.2	109.9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0.9	0.8	0.7	1.5	1.0	2.1	1.9	2.2	2.6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1.0	-1.0	-1.1	0.7	-0.6	2.0	1.8	2.7	3.6
농축수산물	3.7	1.1	3.1	7.5	3.8	6.1	6.1	8.6	12.2
공업제품	-1.1	-0.7	-0.5	0.4	-0.5	2.1	1.3	0.7	1.0
전기·수도·가스	-8.2	-7.0	-13.0	-8.7	-9.2	-6.9	-2.4	8.0	8.0
서비스	2.4	2.4	2.2	2.1	2.3	2.1	2.0	1.9	1.8
집세	2.0	1.9	1.8	1.7	1.9	1.7	1.8	1.7	1.6
공공서비스	2.0	1.9	1.0	0.9	1.5	1.0	1.0	1.0	0.9
개인서비스	2.6	2.7	2.8	2.7	2.7	2.7	2.5	2.4	2.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44) 2016년 7월~9월 중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18.8%)함

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1), “2017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외거래〉

- 2017년 2/4분기 수출은 IT 관련 상품 및 석유화학 제품 등의 단가 상승 및 수요 확대에 따라⁴⁶⁾ 전년동기대비 16.7%(1,471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비중이 큰 원자재와 자본재 중심으로 18.8% 증가(1,179억 달러)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9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경공업제품(△3.9%)이 감소하고, 식료 및 직접소비재(4.8%)와 원료 및 연료(15.2%)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중화학 공업품(18.8%)이 모바일 기기 고(高)사양화, 주력품목 단가 상승, 선진국 경기회복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됨⁴⁷⁾
 - 7월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함
 - 8월 수출은 반도체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87.6억 불)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함⁴⁸⁾
 - 수입의 경우, 자본재(19.4%)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소비재(5.3%)와 원자재(23.2%)는 증가세가 둔화됨
 - 7월 수입은 소비재(21.8%)가 금·승용차 등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비중이 큰 원자재(10.7%)와 자본재(19.3%) 증가세가 둔화되어 15.5% 증가함⁴⁹⁾
 - 8월 수입은 자본재(15.0%)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나, 원자재(15.7%)는 원유도입단가 상승 및 물량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재(14.8%)는 직접소비재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15.3% 증가함⁵⁰⁾

4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8), 『2017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4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8월 수출입 동향”

48)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8.6억 불) 및 차세대저장장치(SSD, 5.4억 불)가 사상최대, 복합구조칩집적회로(MCP, 19.5억 불) 등(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8월 수출입 동향”)

49) 한국은행(2017. 9. 7), 『조사통계월보』, 2017년 8월호

50) 한국은행(2017. 10. 12), 『조사통계월보』, 2017년 9월호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5.0	5.3	10.9	10.6	8.0	9.5	4.8	6.2	5.1
	원료 및 연료	-31.3	-20.5	-16.0	5.0	-16.4	58.5	15.2	3.2	34.2
	경공업 제품	-5.5	-0.8	5.8	1.2	0.2	1.9	-3.9	1.8	36.8
	중화학 공업품	-13.0	-6.1	-5.0	1.5	-5.7	12.8	18.8	23.0	14.6
	전체	-13.7	-6.7	-5.0	1.8	-5.9	14.7	16.7	19.5	17.3
	금액	1,151.9	1,260.2	1,218.5	1,323.6	4,954.3	1,320.9	1,470.7	488.4	470.7
수입	소비재	-2.6	3.4	0.5	2.5	1.0	8.0	5.3	21.8	14.8
	원자재	-25.3	-18.6	-8.7	3.8	-12.8	36.1	23.2	10.7	15.7
	자본재	-7.6	-3.2	-2.5	5.1	-2.0	16.1	19.4	19.3	15.0
	전체	-16.0	-10.1	-5.1	4.1	-6.9	24.0	18.8	15.5	15.3
	금액	938.3	993.0	1,024.6	1,105.9	4,061.9	1,163.3	1,179.3	385.6	404.8
무역수지		213.6	267.2	193.9	217.7	892.3	157.6	291.4	102.9	66.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7년 2/4분기 지역별 수출은 중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함

○ 수출의 경우, 중국(7.4%)이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미국(0.0%)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수출 감소로 부진한 반면, 아세안(27.1%)은 고부가 선박 및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생산 증대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⁵¹⁾

- 7월 수출은 중동(△5.4%)과 중남미(△7.6%)를 제외하고 아세안(31.4%)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함⁵²⁾

- 8월 수출은 중동(△0.5%)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국(15.5%)에 대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⁵³⁾

○ 수입의 경우, 중동지역이 원유 수입단가⁵⁴⁾ 상승세로 전년동기대비 27.6% 상승하였고,

5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8), 『2017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7. 1), “2017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5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8. 1), “2017년 7월 수출입 현황”

5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8월 수출입 현황”

중국(13.9%), 동남아(21.1%), 일본(20.9%), 미국(26.0%) 등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함
 - 7월과 8월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16.4%, 37.7% 증가하였으며 중국, 동남아, 미국 등도 증가세를 이어감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중국	25.1	-12.7	-8.0	-0.9	-9.3	17.5	7.4	6.5	15.5
	ASEAN	15.0	-1.3	-1.1	12.5	-0.4	31.5	27.1	31.4	23.5
	미국	13.4	-4.3	-8.8	-3.1	-4.8	-2.1	0.0	7.0	23.1
	EU	9.4	-10.0	-8.4	0.9	-3.1	8.0	36.0	10.3	43.1
	중동	5.3	-22.2	-15.9	4.9	-13.8	2.0	-4.7	-5.4	-0.5
	중남미	5.1	-17.1	-11.7	-8.3	-17.1	11.6	6.7	-7.6	16.5
	일본	4.9	-14.0	3.5	6.1	-4.8	18.8	11.3	4.7	5.2
	전체	100.0	-6.7	-5.0	1.8	-5.9	14.7	16.7	19.5	17.3
수입	중국	21.4	-3.0	-3.4	1.2	-3.6	15.6	13.9	10.8	10.0
	동남아	15.3	-2.4	0.8	4.7	-1.3	16.5	21.1	20.1	16.4
	중동	13.3	-29.9	-12.7	8.4	-21.0	65.7	27.6	16.4	37.7
	EU	12.8	-10.4	-10.3	-4.7	-9.3	8.7	4.5	18.1	1.3
	일본	11.7	-3.7	11.4	19.6	3.5	25.1	20.9	12.1	8.9
	미국	10.6	-1.5	-6.2	5.0	-1.8	19.2	26.0	18.2	24.6
	호주	3.7	-17.5	-13.2	17.4	-7.7	31.8	45.1	42.9	17.8
	전체	100.0	-10.1	-5.1	4.1	-6.9	24.0	18.8	15.5	15.3

주: 1) 2016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7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434.7만 원을 기록하며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도 전년동기대비 1.0% 줄어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친 287.8만 원을 기록함

54) 관세청 보도자료(2017. 9. 15), “2017년 8월 수출입 현황”

- 원유 수입단가(\$/배럴): ('17. 3) 55.9, (4) 53.7, (5) 53.8, (6) 51.7, (7) 48.5, (8) 49.4

- 원유 수입단가 증가율(%): ('17. 3) 69.9, (4) 42.7, (5) 27.8, (6) 13.4, (7) 4.0, (8) 10.2

- 사업소득은 4.1% 증가한 89.1만 원, 재산소득은 12.9% 증가한 1.7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 전소득은 1.6% 감소한 44.0만 원을 나타냄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55.5	430.6	444.5	431.2	439.9	459.3	434.7
	증가율	0.8	0.8	0.7	0.2	0.6	0.8	0.9
	실질 증가율 ²⁾	0.0	0.0	-0.1	-1.2	-0.4	-1.2	-1.0
근로소득	금액	302.2	286.3	301.9	290.6	294.8	302.2	287.8
	증가율	0.3	1.9	1.9	0.4	1.0	0.0	0.5
사업소득	금액	84.9	85.6	86.2	86.9	85.9	85.6	89.1
	증가율	3.3	0.2	1.1	2.2	1.5	0.9	4.1
재산소득	금액	1.9	1.5	1.4	1.7	1.6	2.2	1.7
	증가율	-21.0	-9.8	-31.9	-4.4	-18.4	15.2	12.9
이전소득	금액	47.0	44.7	44.6	42.5	44.7	49.5	44.0
	증가율	0.7	3.8	0.4	2.9	2.1	5.3	-1.6
처분가능 소득	금액	370.4	351.9	360.7	354.1	358.8	-	-
	증가율	1.0	1.0	0.7	0.4	0.7	-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66.9	249.4	257.9	246.8	255.0	-	-
	증가율	0.6	0.0	0.7	-3.2	-0.5	-	-
	실질 증가율 ²⁾	-0.3	-0.9	-0.1	-4.6	-1.5	-	-
흑자액	금액	103.5	102.5	102.8	107.3	103.8	-	-
	증가율	1.9	3.6	0.8	9.7	3.8	-	-
평균소비성향 ³⁾		72.1	70.9	71.5	69.7	71.1	-	-
흑자율 ⁴⁾		27.9	29.1	28.5	30.3	28.9	-	-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5)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가 분기 주기 공표에서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됨. 단, 가계소득통계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발표함.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 2017년 2/4분기 경기동향⁵⁵⁾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⁵⁶⁾가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1.3을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⁵⁷⁾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 최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실물경제활동 간 격차를 나타냄⁵⁸⁾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재고순환지표, 구인구직비율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자기대지수,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1.3을 기록함
 -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비자자기대지수와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한 101.8을 기록함
 -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소비자자기대지수가 하락 전환하여 전월과 동일한 101.8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하며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수입액이 감소하여 전월과 동일한 100.7을 기록함
 -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한 100.8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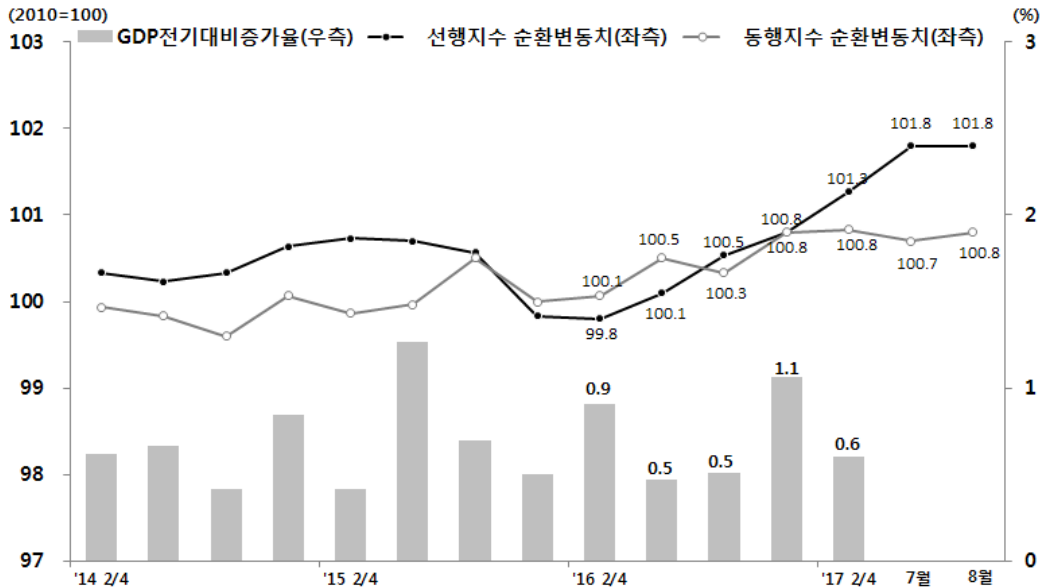
55)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56)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7)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8) 국회예산정책처(2017. 9),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7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2/4분기 재고율⁵⁹⁾은 제조업 출하지수 하락(-1.9), 재고지수 상승(3.8)으로 전분기 대비 6.7%p 상승한 122.0%를 기록함⁶⁰⁾

○ 7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119.0%임

- 7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 자동차,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석유정제,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1차금속, 전자부품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1.0% 증가함⁶¹⁾

○ 8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1.7%p 상승한 120.7%를 나타냄

- 8월 제조업 출하는 석유정제,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화학제품, 1차금속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1차금속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2.0% 증가함⁶²⁾

59)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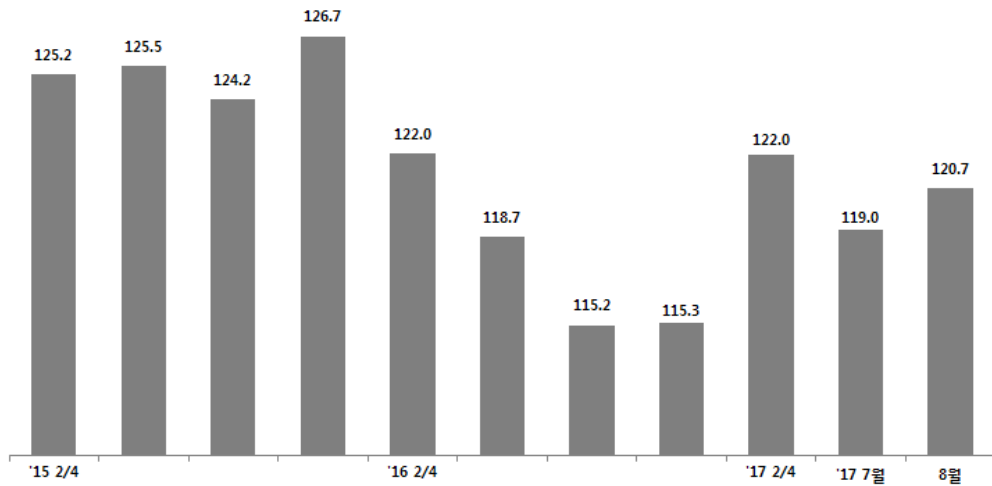
60) 2017년 4월 ~ 8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61) 통계청 보도자료(2017. 8. 31), “2017년 7월 산업활동동향”

62)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9), “2017년 8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7년 3/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1.77%, 1.97%, 2.28%로 2017년 2/4분기(1.68%, 1.88%, 2.20%)보다 상승함
 -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
 - 국고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임
- 2017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32.2원으로 전분기(1,129.4원)대비 상승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385.43으로 전분기(2,279.26)대비 상승함
 -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임
 - 미국 증시 상승,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임
- 2017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21,148.71으로 전분기(19,618.50)대비 상승하였으며, 평균 보험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1.97, 0.91로 전분기(10.70, 0.86)대비 상승함
 - KOSPI 보험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도 상승함

〈금리〉

■ 2017년 3/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표 33〉 참고)

- 2017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완만한 소비회복, 수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8.2 부동산 대책 추이 점검 필요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어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의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 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

- 2017년 3/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하락한 1.39%임(〈표 33〉 참고)
 ○ 7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39%, 8월과 9월은 각각 1.39%, 1.38%임
- 2017년 3/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각각 1.77%, 1.97%, 2.28%임(〈표 33〉 참고)
 ○ 7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⁶³⁾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1.67%, 1.86%, 2.17%)보다 상승한 1.74%, 1.94%, 2.25%를 기록함
 ○ 8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7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1.78%, 1.99%, 2.29%를 나타냄
 ○ 9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외국인 채권 매도 확대 등으로 3년물 1.79%, 5년물 1.99%, 10년물 2.29%로 소폭 상승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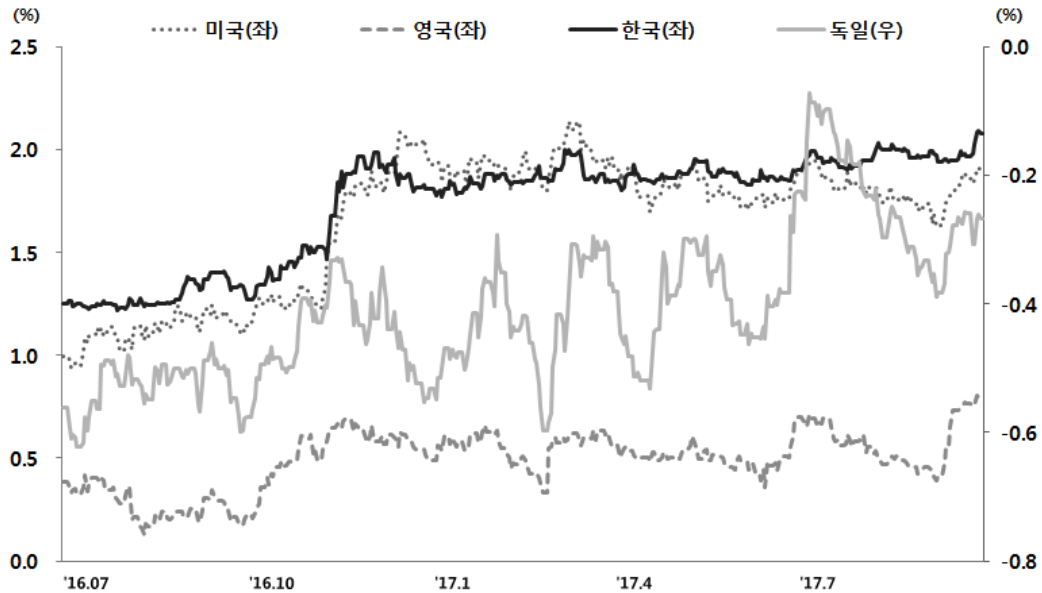
구분	2016 3/4	2016 4/4	2017 1/4	2017 2/4	2017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25	1.25	1.25	1.25	1.25	-	-
CD(91일)	1.35	1.44	1.49	1.40	1.39	-0.01	0.04
국고채(3년)	1.26	1.55	1.67	1.68	1.77	0.09	0.51
국고채(5년)	1.29	1.67	1.86	1.88	1.97	0.09	0.68
국고채(10년)	1.44	1.91	2.17	2.20	2.28	0.08	0.84
회사채(3년, AA-)	1.67	1.99	2.15	2.21	2.31	0.10	0.64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1	0.44	0.48	0.53	0.54	0.01	0.13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북한 관련 리스크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 테러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9월 FOMC 회의에서 올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승함(〈그림 3〉 참고)

63)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 2.8%,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7. 13),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7년 3/4분기 평균 2.31%로 전분기대비 10bp 상승함(〈표 33〉참고)

- 7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28%, 8월과 9월은 각각 2.32%, 2.33%를 기록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1bp 확대된 평균 54bp임

〈환율〉

■ 2017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2.8원 상승한 평균 1,132.2원임(〈표 34〉참고)

- 7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⁶⁴⁾ 미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우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로 전월대비 4.4원 상승한 1,134.4원을 기록함
- 8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미국 정부 폐쇄 우려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으로 7월보다 3.6원 하락한 1,130.8원임

64) 2017년 1/4분기 GDP가 개인소비지출과 수출 호조로 1.2%에서 1.4%로 상향조정되고 PCE 근원물가도 연준 목표수준인 2.0%를 기록

-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미국 간의 긴장 지속, 연내 미국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31.6원을 기록함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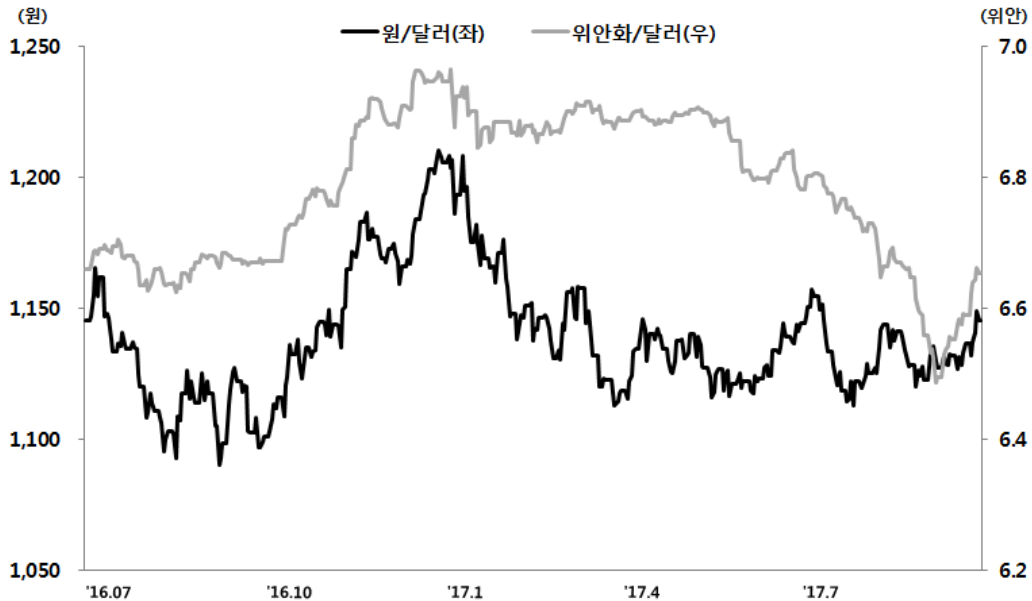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121.4	1,157.4	1,154.3	1,129.4	1,132.2	1,134.4	1,130.8	1,131.6
엔/달러	102.4	109.5	113.7	111.0	111.0	112.5	109.8	110.7
달러/유로	1.116	1.078	1.065	1.101	1.175	1.151	1.182	1.191
위안/달러	6.667	6.833	6.889	6.862	6.671	6.773	6.671	6.567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 2017년 3/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전분기대비 0.19위안 하락한 평균 6.671위안을 기록함
-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최근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5위안 까지 하락하였으며, 원화 역시 약세를 보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4〉 참고)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7년 3/4분기 달러화는 엔화,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상승함(〈표 34〉 참고)

○ 7월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무제한 지정가 국채매입⁶⁵⁾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한 112.5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ECB의 통화완화 축소 가능성,⁶⁶⁾ 그리스의 채권발행 재개⁶⁷⁾ 등으로 상승하여 1.151달러를 기록함

○ 8월에는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액 축소 등으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109.8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럽 경제지표 개선,⁶⁸⁾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⁶⁹⁾ 등의 영향으로 1.182달러를 나타냄

65)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를 0.11% 고정금리에 무제한 매입하기로 결정함

66) 7월 20일 열린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 미흡하지만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성장세가 확대되면 QE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을 표명

67) 그리스 재무부는 7월 25일 5년물 국채(연 4.625%)를 발행하여 30억 유로를 조달함

68)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4분기 0.5%(qoq) → 2/4분기 0.6%

CPI 상승률: 6월 1.3% → 8월 1.5%, 근원 CPI 상승률: 6월 1.1% → 8월 1.2%

경기신뢰지수: 6월 109.3 → 8월 111.9, 10년래 최고치 기록

69) 피치는 재정건전성 및 경기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

- 9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여 110.7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럽 경제의 경기회복세 지속 기대⁷⁰⁾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1.191달러임

〈주가〉

■ 2017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279.26보다 상승한 평균 2,385.43임(〈그림 5〉참고)

- 7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미국 증시 상승,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월 평균주가지수 2,372.20보다 상승한 2,412.90을 나타냄
- 8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372.18로 북한의 광 공격 계획 성명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7월에 비해 하락함
- 9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371.84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 외국인 순매도⁷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함

70)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년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1.9% → 2.2%)

71) 2017년 9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는 약 1조 6,100억 원임

〈그림 5〉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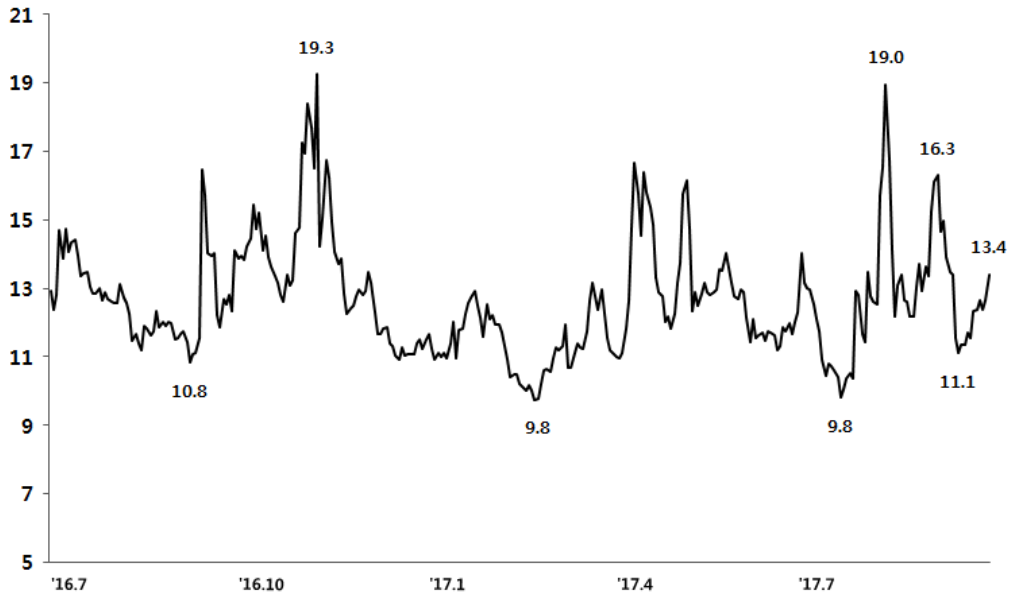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 2017년 3/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하락을 반복하고 있음(〈그림 6〉 참고)

○ 8월에는 북한의 꺾 위협 발언으로 변동성지수가 19.0까지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상승세가 축소됨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7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19,618.50보다 상승한 21,148.71임

〈그림 7〉 참고)

-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와 상반기 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⁷²⁾ 발표로 손해보험회사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72) 현행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한다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8. 9)

〈그림 7〉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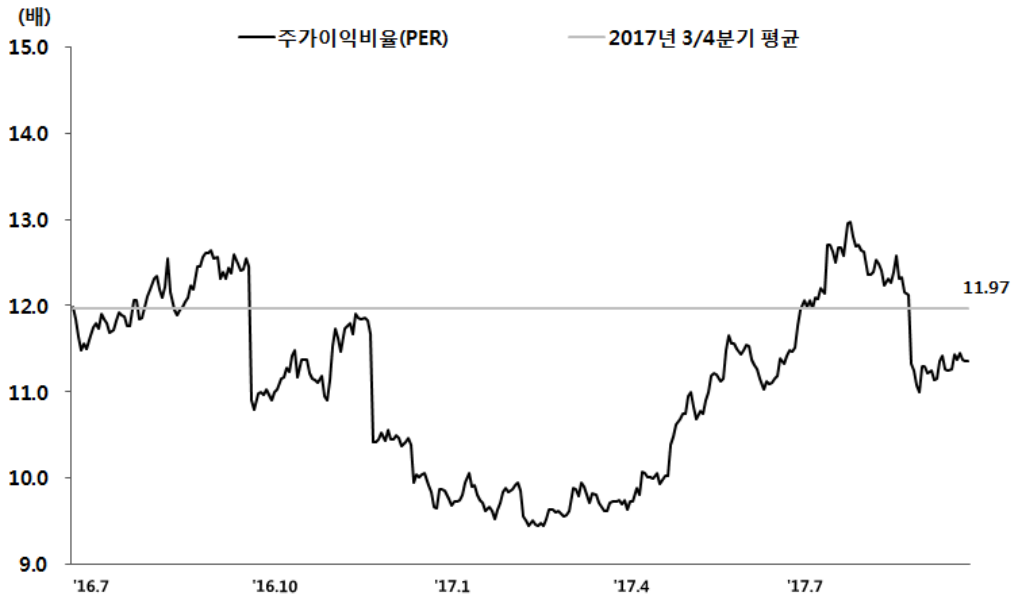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4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7년 3/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1.97과 0.91으로 전분기 평균인 10.70과 0.86에 비하여 상승함(〈그림 8〉, 〈그림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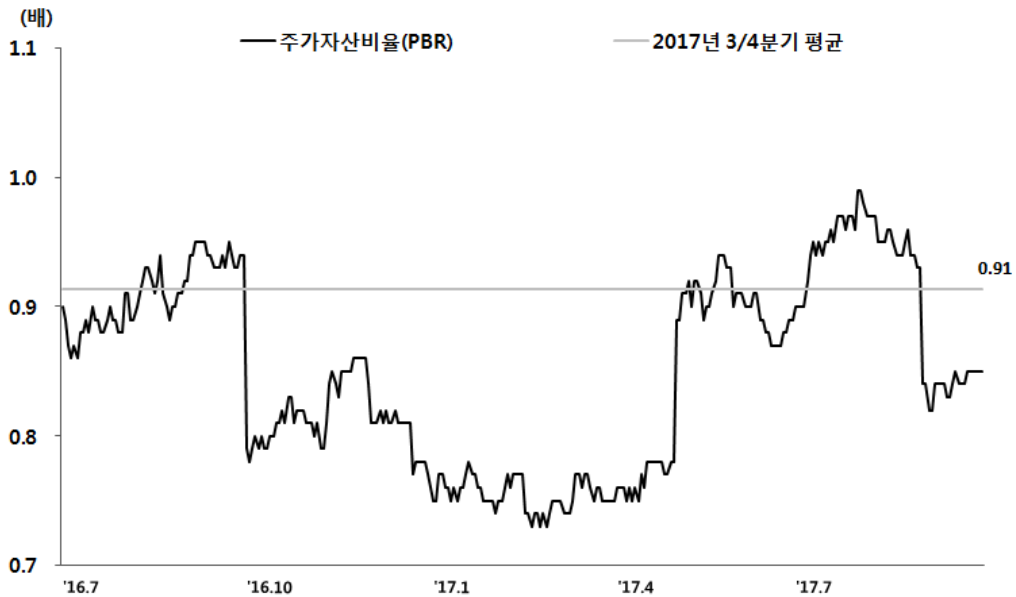
○ 보험지수의 상승으로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 모두 상승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7년 3/4분기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7년 3/4분기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Ⅱ. 국내보험 동향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48조 3,738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8.0%p 상승한 67.7%, 손해보험 손해율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한 78.7%를 기록하며 다소 개선됨
-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9.0% 증가한 2조 4,726억 원임(재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 제외)
 - 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4.5% 증가한 1조 4,017억 원, 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2.5% 증가한 1조 708억 원임
-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2.7% 증가한 1,077조 4,763억 원을 기록함
 - 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3% 증가한 970조 4,613억 원,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6.3% 증가한 107조 150억 원임
- 보험산업 연간 기준 환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56%p 상승한 10.70%를 나타냈으며,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4%p 상승한 1.17%를 나타냄
 - 생명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86%p 상승한 8.63%,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7%p 상승한 0.92%임
 - 손해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4.25%p 상승한 16.07%,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5%p 상승한 1.93%임
- 2017년 2/4분기 말 전속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의 경우 전분기대비 269명 감소한 11만 1,393명, 손해보험의 경우 전분기대비 7,077명 증가한 16만 5,886명으로 집계됨
 -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927명 증가한 1만 4,701명, 손해보험이 전분기대비 7,527명 증가한 8만 6,201명임

1. 보험 총괄

가. 수입(원수)보험료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48조 3,738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¹⁾는 사망보험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의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27조 3,991억 원을 나타냄(〈표 7〉 참조)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²⁾는 연금부문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20조 9,748억 원을 기록함(〈표 18〉 참조)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28.3 (1.7)	27.3 (0.6)	35.2 (0.9)	119.8 (2.2)	28.6 (-1.4)	27.4 (-3.3)
손해보험	20.5 (6.8)	19.7 (4.3)	24.5 (7.4)	84.5 (5.3)	20.6 (4.0)	21.0 (2.2)
합계	48.8 (3.8)	47.0 (2.1)	59.7 (3.4)	204.3 (3.5)	49.2 (0.8)	48.4 (-1.0)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1) 보험회사가 회계연도 동안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으로 구성됨
- 2)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의 합계임

나. 지급률(손해율) 및 사업비율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수입보험료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8.0%p 상승한 67.7%, 사업비율은 1.1%p 상승한 14.5%, 해지율은 동일한 4.5%임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한 78.7%, 사업비율은 0.7%p 상승한 19.9%, 합산비율은 1.9%p 하락한 98.6%를 기록함

〈표 2〉 지급률 · 손해율 및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생명 보험 ¹⁾	지급률	59.7	62.8	58.7	59.8	69.5	67.7
	사업비율	13.4	14.0	11.5	12.9	14.2	14.5
	해지율	4.5	6.5	8.5	8.5	2.4	4.5
손해 보험 ²⁾	손해율	81.3	79.9	83.8	81.7	79.9	78.7
	사업비율	19.2	19.6	20.7	19.7	20.3	19.9
	합산비율	100.5	99.5	104.5	101.4	100.3	98.6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 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지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금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제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보유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출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증가함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269명 감소한 11만 1,393명이며,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927명 증가한 1만 4,701명임
-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450명 감소한 7만 9,685명이며,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7,527명 증가한 8만 6,201명임

〈표 3〉 보험산업 설계사 수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생명 보험	전속설계사	114,998	114,004	111,813	111,124	111,393
	교차설계사	10,015	11,401	12,764	13,774	14,701
손해 보험	전속설계사	82,719	82,885	81,331	80,135	79,685
	교차설계사	75,299	77,042	77,661	78,674	86,201

자료: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7% 증가한 1,077조 4,763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813조 1,676억 원,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3.5% 증가한 264조 3,087억 원임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총부채 규모는 전분기대비 2.3% 증가한 970조 4,613억 원을 기록했으며, 총자본 규모는 전분기대비 6.3% 증가한 107조 150억 원임

○ 총부채와 총자본 규모는 생명보험의 경우 각각 전분기대비 2.1%, 5.9%, 손해보험의 경우 3.0%, 7.0% 증가함

〈표 4〉 보험산업 재무상태표^{1),2)}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생명 보험	총자산	761.0 (2.6)	775.5 (1.9)	782.2 (0.9)	782.2 (7.9)	793.5 (1.5)	813.2 (2.5)
	총부채	689.2 (2.1)	701.0 (1.7)	716.4 (2.2)	716.4 (8.4)	725.5 (1.3)	741.1 (2.1)
	총자본	71.8 (7.1)	74.5 (3.8)	65.8 (-11.7)	65.8 (2.8)	68.1 (3.5)	72.1 (5.9)
손해 보험	총자산	241.1 (3.8)	247.2 (2.5)	252.0 (1.9)	252.0 (11.5)	255.4 (1.3)	264.3 (3.5)
	총부채	207.2 (2.8)	211.4 (2.0)	219.5 (3.8)	219.5 (11.6)	222.7 (1.4)	229.4 (3.0)
	총자본	33.9 (11.0)	35.8 (5.5)	32.5 (-9.3)	32.5 (10.8)	32.6 (0.5)	34.9 (7.0)
합계	총자산	1,002.1 (2.9)	1,022.7 (2.1)	1,034.2 (1.1)	1,034.2 (8.8)	1,048.9 (1.4)	1,077.5 (2.7)
	총부채	896.4 (2.2)	912.4 (1.8)	935.9 (2.6)	935.9 (9.1)	948.2 (1.3)	970.5 (2.3)
	총자본	105.7 (8.3)	110.3 (4.3)	98.3 (-10.9)	98.3 (5.3)	100.7 (2.5)	107.0 (6.3)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39.0% 증가한 2조 4,726억 원임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44.5% 증가한 1조 4,017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32.5% 증가한 1조 708억 원을 기록함

〈표 5〉 보험산업 당기순이익^{1),2)}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생명 보험	당기순이익 ²⁾	1.0 (-36.1)	1.1 (23.1)	-0.9 (881.4)	2.5 (-31.5)	1.6 (18.6)	1.4 (44.5)
	보험영업이익	-5.0 (6.5)	-5.0 (2.2)	-7.2 (14.0)	-22.4 (7.0)	-5.1 (-1.8)	-4.9 (-2.3)
	투자영업이익	5.3 (-4.5)	5.4 (8.3)	4.9 (-4.7)	21.4 (-0.2)	6.0 (4.8)	5.6 (6.3)
	영업외이익	1.0 (1.7)	1.0 (4.4)	1.1 (6.9)	4.1 (6.9)	1.1 (0.7)	1.2 (18.4)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⁵⁾	4.6 (-17.9)	4.5 (-8.0)	2.5 (-31.5)	2.5 (-31.5)	6.3 (18.6)	6.0 (29.6)
손해 보험	당기순이익 ²⁾	0.8 (28.9)	0.8 (61.8)	0.3 (40.0)	2.5 (32.8)	1.1 (57.0)	1.1 (32.5)
	보험영업이익	-0.6 (-12.5)	-0.4 (-45.2)	-1.1 (0.6)	-2.7 (-15.5)	-0.5 (-24.3)	-0.3 (-52.8)
	투자영업이익	1.6 (9.2)	1.5 (7.5)	1.5 (5.7)	6.2 (4.8)	1.9 (22.8)	1.6 (1.5)
	영업외이익	0.0 (38.6)	-0.1 (149.6)	0.0 (-123.1)	-0.2 (36.3)	-0.1 (2.1)	0.0 (-135.7)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⁵⁾	3.0 (20.3)	3.0 (32.0)	2.5 (32.8)	2.5 (32.8)	4.3 (57.0)	4.3 (43.7)
당기순이익 합계 ^{3),4)}		1.8 (-17.1)	1.9 (36.8)	-0.7 (-804.7)	5.0 (-9.2)	2.6 (31.6)	2.5 (39.0)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합계 ^{5),6)}		7.6 (-6.2)	7.5 (4.7)	5.0 (-9.2)	5.0 (-9.2)	10.6 (31.6)	10.2 (35.1)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외국계를 포함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수치임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5)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6)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ROE)은 전년동기대비 2.56%p 상승한 10.70%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1.86%p 상승한 8.63%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4.25%p 상승한 16.07%를 나타냄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ROA)은 전년동기대비 0.24%p 상승한 1.17%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17%p 상승한 0.92%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45%p 상승한 1.93%를 나타냄

〈표 6〉 보험산업 자본 및 자산이익률^{1),2)}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자본 이익률 (ROE)	생명보험	6.77	6.53	3.79	9.41	8.63
	손해보험	11.82	11.67	10.48	16.68	16.07
	합계	8.14	7.93	5.61	11.42	10.70
자산 이익률 (ROA)	생명보험	0.75	0.73	0.39	0.97	0.92
	손해보험	1.48	1.48	1.23	1.97	1.93
	합계	0.93	0.91	0.60	1.22	1.17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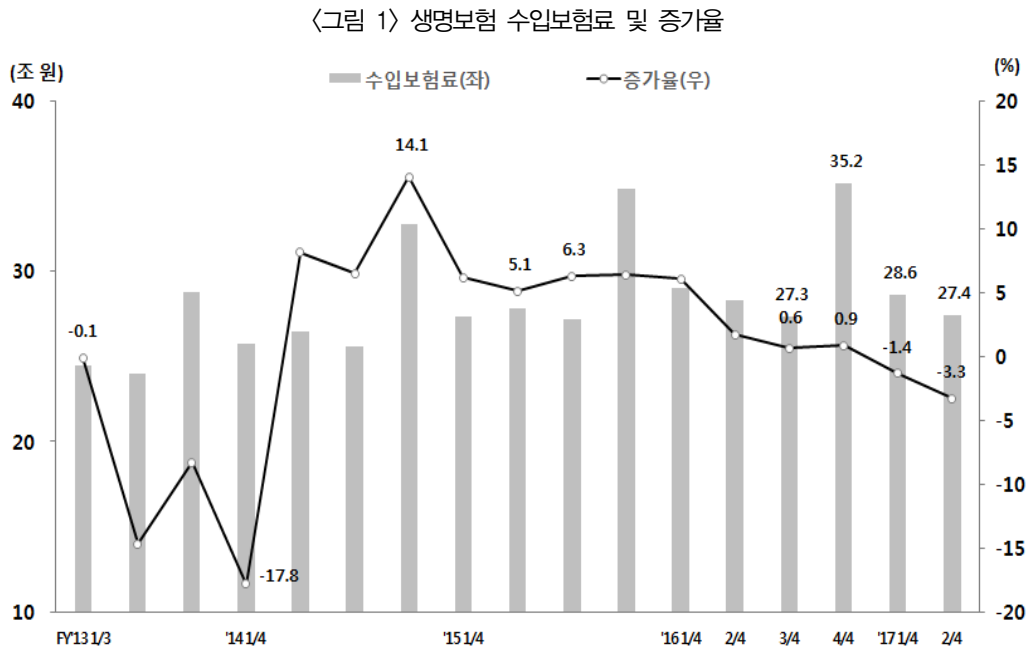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종목별 수입보험료〉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27조 3,991억 원을 기록함
(〈그림 1〉 참조)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사망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의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24조 6,956억 원을 기록함(〈표 7〉 참조)
 - 생존보험³⁾ 수입보험료는 저금리의 지속과 제도 변화에 따른 판매유인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한 4조 8,844억 원을 나타냄
 -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41.5%, 2.6% 감소함

3) 피보험자가 생존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음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10조 51억 원으로 새 국제회계기준을 대비하기 위한 판매 확대 전략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함
 - 특히, 초회보험료는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⁴⁾의 신규 수요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⁵⁾ 수입보험료는 일부 생명보험회사⁶⁾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제혜택 축소⁷⁾에 따른 수요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9.6% 감소한 5조 646억 원을 기록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초회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4조 7,414억 원을 기록함

- 2017년 2/4분기 단체보험⁸⁾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한 2조 7,035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적립금의 이탈로 계속보험료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한 2조 5,112억 원을 나타내며 역성장함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1,923억 원임

4)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의미함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미리 정해진 시점(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양로보험이 이에 해당함. 만기생존 시 생존보험금의 합계가 납입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됨

6)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 상품의 일시납을 포함한 단기납보험을 중심으로 신규 판매를 확대하였음

7) 2017년 4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 보험료 납입 유형에 따라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8)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표 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수입보험료	53,563 (-12.4)	52,363 (-14.6)	51,308 (-16.5)	214,279 (-13.2)	54,189 (-5.0)	48,844 (-8.8)
	초회보험료 ²⁾	8,542 (-44.0)	7,872 (-47.8)	6,510 (-54.3)	34,489 (-44.5)	10,219 (-11.6)	5,001 (-41.5)
	계속보험료	45,021 (-1.9)	44,491 (-3.8)	44,799 (-5.2)	179,790 (-2.6)	43,970 (-3.3)	43,844 (-2.6)
사망	수입보험료	95,863 (8.4)	96,798 (6.9)	97,454 (5.5)	386,607 (7.3)	99,001 (2.6)	100,051 (4.4)
	초회보험료	4,252 (5.9)	4,082 (-23.6)	3,323 (-25.8)	19,126 (-5.7)	3,897 (-47.8)	3,574 (-15.9)
	계속보험료	91,611 (8.5)	92,716 (8.8)	94,132 (7.1)	367,480 (8.1)	95,103 (6.8)	96,477 (5.3)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56,050 (4.8)	56,533 (10.5)	49,312 (-13.8)	228,294 (6.8)	58,554 (-11.9)	50,646 (-9.6)
	초회보험료	13,059 (20.8)	12,424 (42.5)	7,560 (-37.1)	55,353 (28.2)	16,753 (-24.9)	10,786 (-17.4)
	계속보험료	42,990 (0.7)	44,109 (3.9)	41,752 (-7.6)	172,941 (1.4)	41,801 (-5.2)	39,860 (7.3)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48,052 (-10.2)	49,786 (-5.4)	47,993 (-2.3)	194,062 (-6.0)	49,794 (3.2)	47,414 (-1.3)
	초회보험료	2,624 (-33.5)	4,380 (5.1)	3,660 (54.0)	12,815 (-0.1)	5,455 (153.5)	2,972 (13.3)
	계속보험료	45,428 (-8.4)	45,406 (-6.3)	44,333 (-5.2)	181,247 (-6.4)	44,339 (-3.8)	44,443 (-2.2)
개 인 계	수입보험료	253,528 (-1.2)	255,479 (-0.1)	246,068 (-5.4)	1,023,242 (-0.4)	261,538 (-2.5)	246,956 (-2.6)
	초회보험료	28,477 (-16.3)	28,757 (-13.7)	21,053 (-36.4)	121,784 (-12.0)	36,325 (-16.5)	22,332 (-21.6)
	계속보험료	225,051 (1.1)	226,722 (2.0)	225,016 (-0.9)	901,458 (1.4)	225,214 (0.2)	224,623 (-0.2)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1,902 (-0.2)	1,794 (-4.5)	1,803 (-2.3)	7,619 (-1.5)	2,149 (1.4)	1,923 (1.1)
	초회보험료	306 (18.3)	258 (-10.6)	260 (2.1)	1,375 (7.4)	598 (8.4)	350 (14.5)
	계속보험료	1,597 (-3.1)	1,536 (-3.4)	1,543 (-3.0)	6,243 (-3.3)	1,551 (-1.1)	1,573 (-1.5)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27,852 (39.3)	16,027 (13.7)	103,725 (19.7)	167,252 (22.1)	22,326 (13.6)	25,112 (-9.8)
	초회보험료	5,094 (29.8)	3,295 (-23.7)	18,752 (-35.0)	31,542 (-27.4)	4,949 (12.5)	5,357 (5.2)
	계속보험료	22,758 (41.7)	12,731 (30.1)	84,973 (47.1)	135,710 (45.1)	17,378 (14.0)	19,755 (-13.2)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29,755 (35.9)	17,821 (11.5)	105,529 (19.3)	174,871 (20.8)	24,475 (12.4)	27,035 (-9.1)
	초회보험료	5,400 (29.1)	3,553 (-22.9)	19,012 (-34.7)	32,917 (-26.4)	5,547 (12.0)	5,707 (5.7)
	계속보험료	24,355 (37.5)	14,267 (25.5)	86,516 (45.8)	141,954 (41.9)	18,928 (12.6)	21,328 (-12.4)
합계	수입보험료	283,283 (1.7)	273,300 (0.6)	351,597 (0.9)	1,198,112 (2.2)	286,014 (-1.4)	273,991 (-3.3)
	초회보험료	33,877 (-11.3)	32,311 (-14.8)	40,065 (-35.6)	154,701 (-15.5)	41,872 (-13.6)	28,039 (-17.2)
	계속보험료	249,406 (3.8)	240,989 (3.1)	311,532 (8.8)	1,043,411 (5.5)	244,142 (1.1)	245,951 (-1.4)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시장점유율〉

- 2017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외국사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3%p, 1.5%p 하락한 44.8%, 35.8%를 기록함
 -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8%p 상승한 19.4%를 나타냄
- 2017년 2/4분기 초회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상위 3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5.3%p 상승한 29.9%를 기록함
 -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일부 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0.5%p 상승한 36.9%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 상승로 전년동기대비 15.8%p 하락한 33.2%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0 하락한 970을 기록함

〈표 8〉 생명보험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점유율 ²⁾	상위 3사	45.1	45.3	47.4	46.2	45.5	44.8
		국내 중·소형사 ³⁾	37.3	37.0	39.1	37.2	34.7	35.8
		외국사 ⁴⁾	17.5	17.8	13.6	16.6	19.8	19.4
	허핀달 지수 ⁵⁾		1,010	1,000	1,092	1,027	1,003	970
초회보험료	점유율	상위 3사	24.6	26.7	25.4	29.6	32.2	29.9
		국내 중·소형사 ³⁾	49.0	50.1	59.7	48.1	32.5	33.2
		외국사 ⁴⁾	26.4	23.2	14.8	22.3	35.2	36.9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각 회사점유율 = 각 회사 수입보험료 / 전체 수입보험료,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점유율은 회사 분류에 따라 각 회사 점유율을 합한 값임

3) 국내 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이며, 동양생명은 2015년 10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4) 외국사는 알리안츠생명 등을 포함한 9개사임

5)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 2017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 대부분 종목의 보험금 지급률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8.0%p 상승한 67.7%를 기록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증가함에 따라 각각 전년동기대비 11.7%p, 14.9%p 상승한 81.1%, 71.0%를 기록함
 - 사망보험과 변액보험 지급률도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여 각각 전년동기대비 0.6%p, 3.8%p 상승한 48.4%, 76.8%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전체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14.5%이며, 해지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4.5%를 기록함

〈표 9〉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전체 보험금 지급률 ¹⁾	59.7	62.8	58.7	59.8	69.5	67.7
개인	59.0	59.7	63.3	59.0	64.9	65.0
생존	69.4	72.1	79.7	71.4	76.9	81.1
사망	47.8	47.6	48.3	48.1	51.4	48.4
생사혼합	56.1	56.1	68.0	56.3	67.7	71.0
변액	73.0	74.4	71.6	70.2	75.3	76.8
단체	65.4	106.3	48.1	64.7	119.0	93.1
일반단체	106.7	112.9	105.2	108.5	89.8	101.4
퇴직연금	62.6	105.6	47.1	62.7	121.8	92.5
사업비율 ²⁾	13.4	14.0	11.5	12.9	14.2	14.5
해지율 ³⁾	4.5	6.5	8.5	8.5	2.4	4.5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여기서 효력상실액이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의미함. 그리고 해지액이란 보험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 적립금에서 보험회사의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⁹⁾〉

■ 2017년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 특히 임직원 채널과 설계사 채널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됨

- 임직원 채널, 설계사 채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4.3%p, 2.0%p, 0.2p 상승한 19.8%, 17.8%, 6.9%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 판매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6.5%p 축소된 55.2%를 나타냄

〈표 10〉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억 원)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임직원	15.5	10.5	45.7	20.5	12.6	19.8
설계사	15.8	17.8	15.2	16.4	16.2	17.8
대리점	6.7	6.9	6.2	6.3	6.6	6.9
중개사	0.1	0.1	0.0	0.1	0.2	0.1
방카슈랑스	61.7	64.4	32.7	56.6	64.3	55.2
기타	0.2	0.2	0.2	0.2	0.2	0.3
합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3,877	32,311	40,065	154,701	41,872	28,039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현재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 비중은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10〉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초회보험료(1회 납입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속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311명 감소한 2만 5,993명임
-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269명 증가한 11만 1,393명을 나타냈으며, 교차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927명 증가한 1만 4,701명을 기록함
- 전체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95개 증가한 6,569개임
 -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수는 각각 3,553개, 3,016개로 전분기대비 77개, 18개 증가함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임직원(명)	27,105	27,155	26,890	26,304	25,993
설계사(명)					
- 전속설계사	114,998	114,004	111,813	111,124	111,393
- 교차설계사	10,015	11,401	12,764	13,774	14,701
대리점(개)	6,119	6,266	6,324	6,474	6,569
- 개인	3,176	3,325	3,413	3,476	3,553
- 법인	2,943	2,941	2,911	2,998	3,016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7년 2/4분기 말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813조 1,676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669.4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3.0% 증가한 143.8조 원을 나타냄

〈표 12〉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총자산	금액	761.0	775.5	782.2	782.2	793.5	813.2
	증가율	2.6	1.9	0.9	7.9	1.5	2.5
일반계정 자산	금액	631.0	643.0	649.7	649.7	653.9	669.4
	증가율	2.9	1.9	1.0	8.1	0.6	2.4
특별계정 자산	금액	130.0	132.5	132.4	132.4	139.6	143.8
	증가율	0.9	2.0	-0.1	7.0	5.4	3.0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부채 · 자본〉

- 2017년 2/4분기 말 생명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741조 538억 원이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5.9% 증가한 72조 1,138억 원임
- 총부채 가운데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 부채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각 전분기대비 1.5%, 3.3% 증가함
- 총자본 가운데 특히 자본잉여금은 일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으로 전분기대비 13.8% 증가하였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유주식 평가이익 증가로 전분기대비 9.2% 증가함

〈표 13〉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총자산	금액	761.0	775.5	782.2	782.2	793.5	813.2
	증가율	2.6	1.9	0.9	7.9	1.5	2.5
총부채	금액	689.2	701.0	716.4	716.4	725.5	741.1
	증가율	2.1	1.7	2.2	8.4	1.3	2.1
책임준비금	금액	527.5	537.5	548.2	548.2	557.3	565.9
	증가율	2.0	1.9	2.0	8.4	1.7	1.5
계약자 지분조정	금액	11.8	12.4	10.1	10.1	10.6	11.7
	증가율	12.7	5.4	-18.4	6.9	5.2	9.6
기타부채	금액	18.6	18.1	19.5	19.5	16.7	17.9
	증가율	4.6	-2.8	8.1	9.9	-14.6	7.6
특별계정부채	금액	131.3	133.1	138.6	138.6	140.8	145.5
	증가율	1.4	1.3	4.1	8.3	1.6	3.3
총자본	금액	71.8	74.5	65.8	65.8	68.1	72.1
	증가율	7.1	3.8	-11.7	2.8	3.5	5.9
자본금	금액	10.4	10.4	10.4	10.4	10.7	10.3
	증가율 ²⁾	0.0	0.0	0.1	0.2	2.6	-3.8
자본잉여금	금액	6.0	6.0	6.1	6.1	6.6	7.5
	증가율	0.0	0.4	0.8	1.2	8.4	13.8
이익잉여금	금액	29.1	30.2	29.2	29.2	30.1	31.5
	증가율	3.2	3.7	-3.4	4.7	3.1	4.5
자본조정	금액	-3.1	-3.1	-3.1	-3.1	-3.1	-3.1
	증가율	0.0	0.0	0.0	21.1	0.1	0.0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29.4	31.0	23.3	23.3	23.8	26.0
	증가율	15.1	5.5	-25.0	4.1	2.5	9.2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의 경우 보험영업 적자규모 축소와 투자영업 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4.5% 증가한 1조 4,017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 적자규모¹⁰⁾는 책임준비금전입액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164억 원 감소한 4조 9,054억 원을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배당수익 증가와 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299억 원 증가한 5조 5,993억 원을 기록함
 - 영업외이익은 특별계정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808억 원 증가한 1조 1,611억 원임
- 2017년 2/4분기 연간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대비 29.6% 증가한 5조 9,515억 원을 기록함
 - 이는 보험영업 적자규모 감소와 배당수익과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증가로 인한 투자영업 이익 증가에 기인함

10)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감안한 수치임

〈표 14〉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1),2)}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21,081	21,099	20,470	85,204	21,784	20,538
	투자영업	5,866	9,581	5,884	29,325	13,255	5,070
	영업외	1,219	1,231	1,273	4,960	1,291	1,346
	소계	28,167	31,911	27,627	119,489	36,330	26,954
총비용	보험영업 ³⁾	26,103	26,069	27,665	107,592	26,891	25,443
	투자영업	597	4,166	953	7,949	7,221	-529
	영업외	239	257	150	820	221	185
	소계	26,939	30,492	28,768	116,362	34,332	25,099
수지차	보험영업	-5,022	-4,971	-7,195	-22,389	-5,107	-4,905
	투자영업	5,269	5,416	4,931	21,376	6,034	5,599
	영업외	980	974	1,123	4,110	1,070	1,161
	소계	1,228	1,419	-1,140	3,127	1,997	1,855
법인세		258	327	-212	667	423	453
당기순이익(A) ⁴⁾		970	1,093	-929	2,461	1,574	1,402
		(-36.1)	(23.1)	(881.4)	(-31.5)	(18.6)	(44.5)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B) ⁵⁾		4,594	4,520	2,461	2,461	6,296	5,951
		(-17.9)	(-8.0)	(-31.5)	(-31.5)	(18.6)	(29.6)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감안한 수치이고,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책임준비금(부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반대의 경우 책임준비금환입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의 보험영업비용(반대의 경우 수익) 항목임

4)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 책임준비금전입액 - 법인세

5)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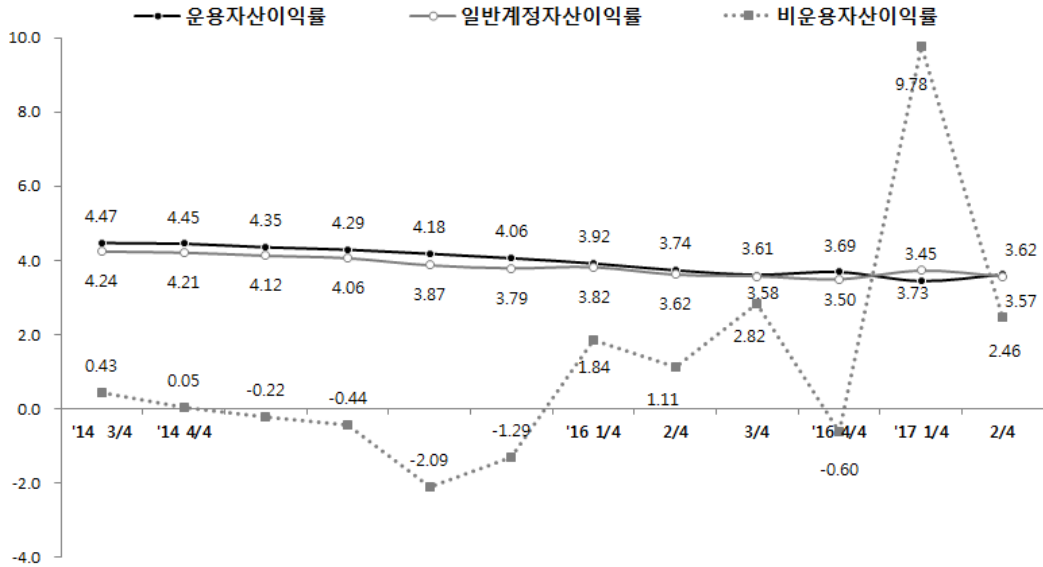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5%p 하락한 3.57%를 기록함
 -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2%p 하락한 3.62%p임
 - 특히, 매도가능증권 이익률과 대출채권 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12%p, 0.29%p 하락한 3.36%, 4.71%를 기록함
 - 부동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4%p 상승한 4.17%를 나타냄
 - 비운용자산 이익률¹¹⁾은 전년동기대비 1.35%p 상승한 2.46%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의 경우 유가증권이 73.9%, 대출채권이 18.1%, 부동산이 2.1%, 현금과 예금이 1.8%를 차지하였으며, 비운용자산 비중은 4.1%를 나타냄¹²⁾
 -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반면,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2%p, 0.6%p 상승함

11) 비운용자산 중 파생상품자산, 보증금, 미수수익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이익률이 집계됨

12) 일반계정 자산은 크게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비중은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그림 2〉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1),2),3)}

(단위:%)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5〉 생명보험 일반계정자산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¹⁾

(단위: %, 억 원)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62	100.0	3.58	100.0	3.50	100.0	3.73	100.0	3.57
운용자산 계	95.6	3.74	95.3	3.61	95.8	3.69	95.3	3.45	95.9	3.62
현금과 예금	2.1	2.40	1.8	2.16	2.3	2.23	2.0	-0.65	1.8	1.00
유가증권	73.7	3.47	73.6	3.24	73.1	3.44	73.0	3.23	73.9	3.41
○당기손익인식증권 ²⁾	2.2	1.87	2.1	1.72	1.7	2.25	1.8	3.60	2.1	4.21
- 주식	0.1	-0.47	0.1	6.34	0.1	5.50	0.1	35.94	0.1	46.34
- 채권 등	0.6	3.34	0.5	2.16	0.6	2.10	0.5	2.38	0.5	3.46
- 수익증권	1.5	1.40	1.5	1.28	1.0	1.38	1.2	1.32	1.5	1.38
○매도가능증권	52.7	3.47	53.2	3.16	51.7	3.41	47.3	3.13	47.4	3.36
- 주식	3.4	3.47	3.7	2.27	3.9	2.12	4.3	6.82	4.8	4.36
- 채권 등	45.7	3.44	45.9	3.21	44.0	3.50	39.1	2.55	38.6	2.99
- 수익증권	3.6	3.87	3.7	3.44	3.7	3.57	3.9	5.40	4.0	6.15
○만기보유증권	17.2	3.74	16.9	3.77	18.2	3.76	22.3	3.06	22.9	3.34
- 채권 등	17.2	3.74	16.9	3.77	18.2	3.76	22.3	3.06	22.9	3.34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6	2.73	1.5	2.38	1.5	2.51	1.5	8.63	1.5	5.04
대출채권	17.5	5.00	17.6	4.98	18.1	4.66	18.2	4.59	18.1	4.71
부동산	2.3	3.84	2.2	6.37	2.2	5.46	2.2	5.17	2.1	4.18
비운용자산 계	4.4	1.11	4.7	2.82	4.2	-0.60	4.7	9.78	4.1	2.46
일반계정자산 규모	6,309,910		6,430,240		6,497,345		6,539,108		6,693,783	
일반계정자산 비중	(82.9)		(82.9)		(83.1)		(82.4)		(82.3)	
총자산 규모	7,609,584		7,755,316		7,821,621		7,935,396		8,131,676	

주: 1)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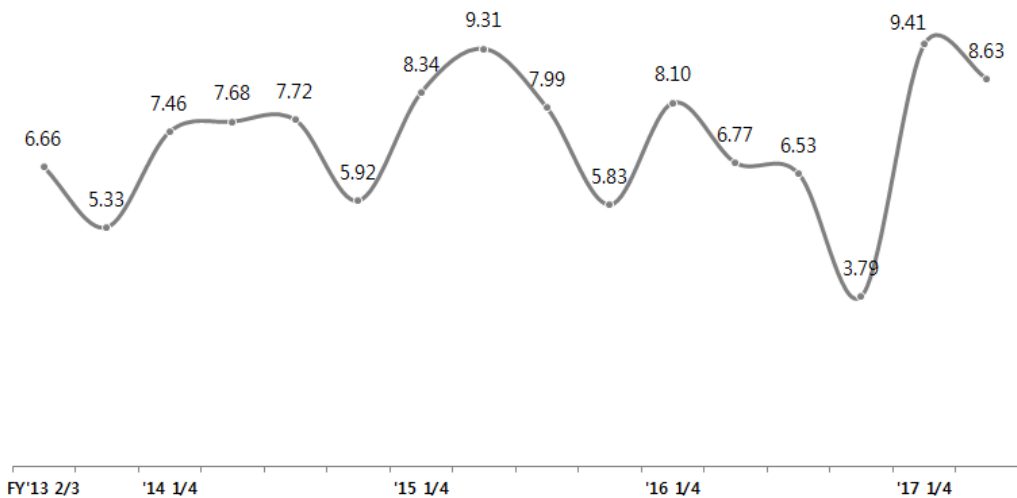
〈자본이익률(ROE)¹³⁾〉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86%p 상승한 8.63%를 기록함

○ 회사 그룹별¹⁴⁾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2.01%p, 0.05%p, 3.75%p 상승한 8.32%, 5.65%, 14.21%를 기록함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누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14)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한 분류에 따라 수정함

〈표 16〉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대형사	6.31	6.21	3.49	9.73	8.32
중·소형사	5.60	5.23	4.32	4.82	5.65
외국사	10.46	9.87	4.12	14.93	14.21
전체	6.77	6.53	3.79	9.41	8.63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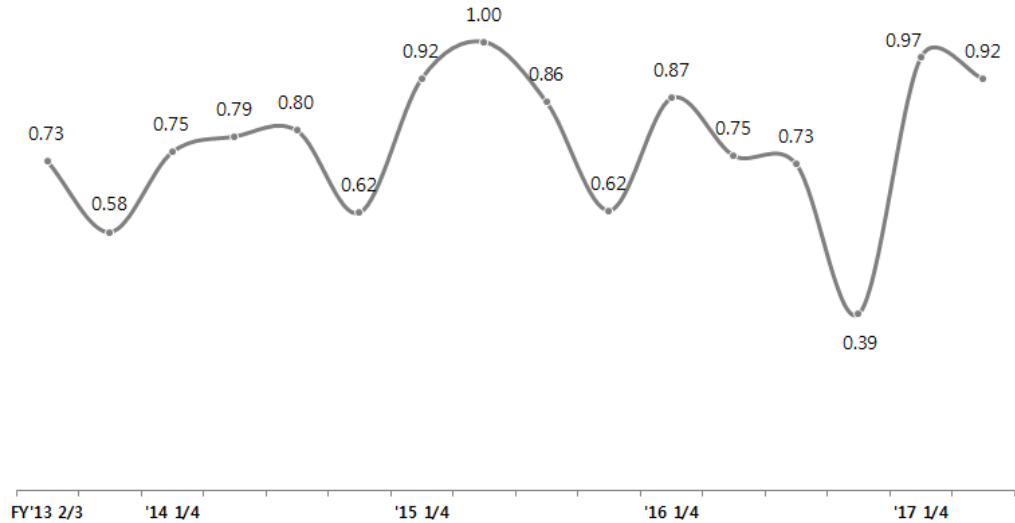
〈자산이익률(ROA)¹⁵⁾〉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7%p 상승한 0.92%를 기록함
 - 대형사, 외국사 자산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23%p, 0.43%p 상승한 0.98%, 1.79%를 나타냄
 - 중·소형사의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4%p 하락한 0.44%를 기록함

15)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대비 누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그림 4〉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7〉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대형사	0.75	0.75	0.39	1.10	0.98
중·소형사	0.48	0.46	0.35	0.37	0.44
외국사	1.36	1.29	0.50	1.83	1.79
전체	0.75	0.73	0.39	0.97	0.92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20조 9,748억 원임

-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상해 및 질병보험의 성장세도 완화된 반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12조 2,206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은 퇴직연금이 감소하고 개인연금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6.3% 감소한 2조 858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보험료 정제와 종합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4조 2,995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은 해상보험과 화재보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 성장세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2조 3,688억 원을 기록함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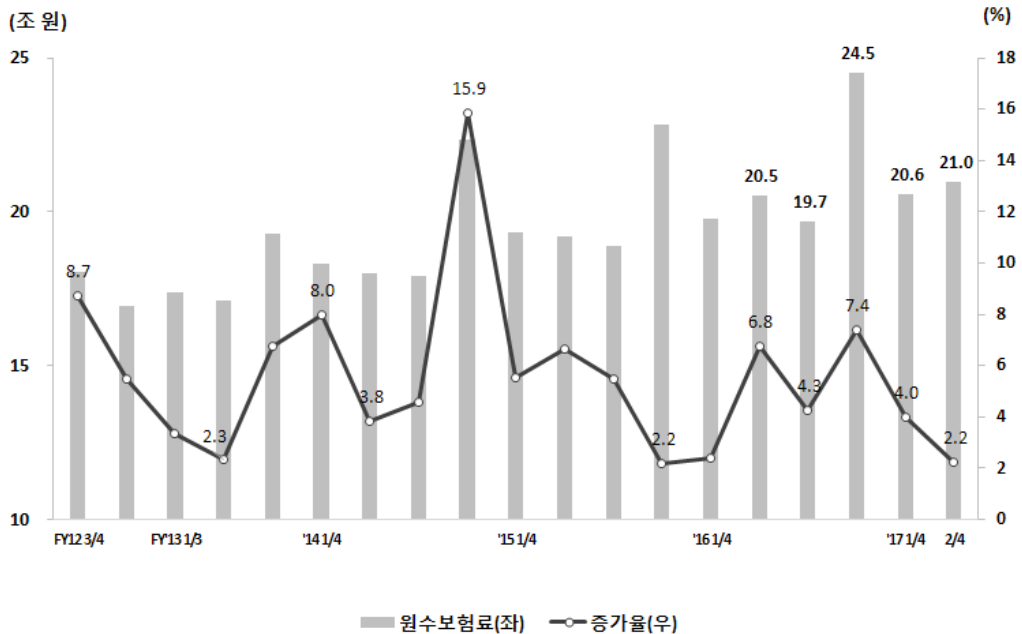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장기손해보험	11.9 (2.9)	12.0 (3.1)	12.1 (3.1)	47.8 (2.6)	12.3 (4.0)	12.2 (2.7)
연금부문	2.2 (24.7)	1.6 (2.0)	6.1 (21.7)	11.8 (13.8)	1.9 (-1.6)	2.1 (-6.3)
자동차보험	4.1 (11.1)	4.1 (10.1)	4.2 (5.4)	16.4 (9.4)	4.2 (7.1)	4.3 (3.9)
일반손해보험	2.3 (5.3)	2.0 (1.7)	2.1 (1.1)	8.5 (2.6)	2.2 (3.4)	2.4 (5.1)
전체	20.5 (6.8)	19.7 (4.3)	24.5 (7.4)	84.5 (5.3)	20.6 (4.0)	21.0 (2.2)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구성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16년 3/4분기부터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된 한국해양보증보험(주) 실적 포함

〈그림 5〉 원수보험료 추이



1) 장기손해보험

■ 2017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운전자보험, 재물보험의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보험의 성장세 둔화, 저축성보험 감소세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12조 2,206억 원을 기록함

- 장기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요건 강화¹⁶⁾과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8.1%, 10.7%의 증가율을 기록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각각 13.3%, 6.5% 증가함
- 통합형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에 그침

■ 2017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폭이 확대되고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항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요건이 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 150만 원으로 강화됨

상해보험, 질병보험과 통합형보험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7.1% 감소한 2,861억 원에 그침

- 비중이 가장 큰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7년 4월 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요건 강화의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5.7%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초회보험료도 각각 12.7%, 2.1%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2분기만에 다시 감소함
 - 장기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신 실손의료보험¹⁷⁾의 출시 기대로 감소함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원수 보험료	상해	36,218 (11.0)	36,597 (9.5)	37,641 (8.8)	145,874 (10.0)	38,455 (8.6)	39,141 (8.1)
	운전자	7,572 (7.9)	7,721 (8.1)	8,084 (11.5)	30,767 (8.6)	8,365 (13.2)	8,580 (13.3)
	재물	10,375 (4.5)	10,551 (5.2)	10,679 (5.1)	41,803 (5.0)	10,822 (6.1)	11,049 (6.5)
	질병	30,890 (13.7)	31,978 (13.5)	32,543 (11.4)	125,663 (13.6)	33,652 (11.2)	34,183 (10.7)
	저축성	21,152 (-19.7)	20,415 (-19.2)	18,682 (-20.6)	82,488 (-21.2)	18,122 (-18.5)	16,148 (-23.7)
	통합형	12,741 (1.8)	12,910 (3.4)	13,090 (5.5)	51,105 (2.6)	13,142 (6.3)	13,100 (2.8)
	자산연계형	7 (-12.4)	7 (-15.4)	7 (-12.0)	28 (-39.5)	6 (-15.7)	6 (-17.9)
	소계	118,954 (2.9)	120,179 (3.1)	120,725 (3.1)	477,727 (2.6)	122,565 (4.0)	122,206 (2.7)
초회 보험료	상해	582 (6.3)	564 (-11.1)	628 (-18.6)	2,384 (-9.6)	678 (11.1)	509 (-12.7)
	운전자	175 (28.1)	168 (2.3)	273 (101.6)	795 (39.4)	203 (13.3)	216 (23.5)
	재물	333 (8.2)	335 (25.0)	325 (11.2)	1,291 (8.9)	330 (10.5)	362 (8.8)
	질병	544 (-7.3)	615 (-1.8)	608 (-6.3)	2,499 (1.2)	992 (35.4)	532 (-2.1)
	저축성	2,212 (-36.3)	2,521 (-28.9)	1,832 (-33.6)	8,710 (-40.6)	2,029 (-5.4)	1,201 (-45.7)

17) 금융위원회(2017. 3. 31), “4. 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통합형	80 (366.3)	61 (392.5)	43 (394.3)	189 (178.2)	50 (801.7)	41 (-48.6)
	자산연계형	0 (-)	0 (-)	0 (-)	0 (-)	0 (-)	0 (-)
	소계	3,925 (-22.6)	4,264 (-18.8)	3,708 (-19.6)	15,867 (-26.5)	4,282 (7.8)	2,861 (-27.1)
계속 보험료	상해	35,636 (11.0)	36,033 (9.9)	37,013 (9.5)	143,490 (10.4)	37,777 (8.5)	38,633 (8.4)
	운전자	7,397 (7.5)	7,553 (8.3)	7,811 (9.8)	29,973 (8.0)	8,162 (13.2)	8,364 (13.1)
	재물	10,042 (4.4)	10,217 (4.7)	10,354 (4.9)	40,512 (4.9)	10,492 (6.0)	10,687 (6.4)
	질병	30,346 (14.1)	31,362 (13.8)	31,935 (11.8)	123,163 (13.9)	32,661 (10.6)	33,650 (10.9)
	저축성	18,940 (-17.2)	17,894 (-17.6)	16,850 (-18.9)	73,778 (-18.0)	16,093 (-19.9)	14,947 (-21.1)
	통합형	12,661 (1.3)	12,850 (3.0)	13,047 (5.3)	50,916 (2.4)	13,092 (5.9)	13,059 (3.1)
	자산연계형	7 (-12.4)	7 (-15.4)	7 (-12.0)	28 (-39.5)	6 (-15.7)	6 (-17.9)
	소계	115,029 (4.0)	115,916 (4.1)	117,018 (4.0)	461,860 (4.0)	118,283 (3.9)	119,346 (3.8)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초회보험료는 1회 납입보험료를 의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2/4분기 전체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5.5%를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5.4%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11.1% 증가하였으며,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은 6.3% 증가함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4.2%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의 감소폭(-17.6%)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감소폭(-10.4%)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임

○ 장기운전자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6.4%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2.2% 증가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도 3.3%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기재물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7.2%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20.1% 증가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도 24.0%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기질병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4.6%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9.9% 증가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도 13.8%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상해	5.2	7.6	10.0	2.9	5.4
운전자	6.5	9.2	11.7	3.4	6.4
재물	7.5	10.5	12.9	3.9	7.2
질병	4.7	6.9	9.0	2.5	4.6
저축성	4.5	6.5	8.7	2.2	4.2
통합형	2.9	4.1	5.7	1.9	3.5
계	5.4	7.9	10.2	3.0	5.5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

■ 2017년 2/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한 2조 858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9,255억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지속됨
-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한 11,603억 원임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개인 연금	보험료	9,696	9,599	9,676	38,768	9,377	9,255
	증가율	-3.2	-4.0	-4.5	-3.6	-4.3	-4.5
	구성비	6.9	60.2	15.9	32.8	50.1	44.4
퇴직 연금 ³⁾	보험료	12,571	6,347	51,247	79,392	9,335	11,603
	증가율	60.3	12.6	28.4	24.7	1.2	-7.7
	구성비	8.9	39.8	84.1	67.2	49.9	55.6
합계	보험료	22,267	15,946	60,923	118,160	18,712	20,858
	증가율	24.7	2.0	21.7	13.7	-1.6	-6.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7년 2/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인배상 I 보험료 정제, 종합보험 중 규모가 큰 대물배상보험료의 증가세 둔화 및 자차보험료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에 그친 4조 2,995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은 전년동기 수준인 7,525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보험료 정제 원인은 자동차 유효대수 증가(4.58%)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시행된 자배법 시행령 개정¹⁸⁾에 따른 보험료 조정 효과 소멸 및 대형 보험회사들의 효율인하 등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3조 3,204억 원을 기록함

- 자차보험료는 7.7% 감소하였으며, 대인배상 II¹⁹⁾와 대물배상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9.7%, 4.6% 증가함

18)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2016. 4. 1 시행)”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시 보상한도를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산 피해 발생 시 보상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함

19)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¹⁹⁾에 따라 장래비 및 사망 후유장에 위자료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2. 27),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7,527 (0.3)	7,282 (0.2)	7,288 (-4.0)	29,394 (-1.5)	7,342 (0.6)	7,525 (0.0)
종합 보험	대인 II	4,991 (24.8)	5,328 (29.2)	5,894 (29.9)	20,708 (27.1)	6,157 (37.0)	6,473 (29.7)
	대물	15,362 (18.1)	15,459 (17.0)	15,988 (10.8)	61,167 (15.5)	15,930 (10.9)	16,068 (4.6)
	자차	9,533 (5.2)	9,142 (0.8)	9,116 (-5.5)	37,366 (3.0)	8,838 (-7.7)	8,801 (-7.7)
	자손	1,542 (6.6)	1,533 (4.8)	1,572 (-0.7)	6,135 (4.4)	1,533 (3.1)	1,574 (2.1)
	무보험	284 (13.6)	278 (9.9)	280 (2.7)	1,102 (9.5)	276 (6.0)	287 (1.2)
	소계	31,711 (14.2)	31,740 (12.8)	32,851 (7.8)	126,477 (12.5)	32,734 (8.5)	33,204 (4.7)
외화표시		0 (-99.1)	0 (-100.0)	0 (-100.0)	1 (-98.9)	0 (-100.0)	0 (-100.0)
기타		2,148 (9.5)	2,110 (9.5)	2,012 (3.9)	8,181 (8.2)	2,098 (9.8)	2,266 (5.5)
합계		41,387 (11.1)	41,133 (10.1)	42,151 (5.4)	164,053 (9.4)	42,174 (7.1)	42,995 (3.9)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원수보험료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2/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4.6%p 하락한 77.5%를 나타냄

○ 대인배상I 손해율은 2.2%p 상승한 77.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0.6% 증가한 반면 경과보험료²⁰⁾는 2.3% 감소하였기 때문임

20)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됨. 여기서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회사의 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라고 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8.3%p 개선된 78.1%를 나타냈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0.2% 감소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10.4% 증가하였기 때문임
 - 대인배상Ⅱ 손해율의 경우 27.7%p 하락한 113.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8.7%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도 35.2% 증가하였기 때문임
 - 대물배상 손해율의 경우 12.9%p 하락한 72.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4.3% 감소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12.7%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74.9	77.3	92.0	78.3	77.9	77.1
종합 보험	대인Ⅱ	141.1	128.8	142.2	136.6	120.0	113.4
	대물	85.4	77.0	79.0	80.9	71.7	72.5
	자차	66.6	64.6	74.7	69.9	70.6	69.3
	자손	63.3	56.2	63.8	60.7	62.1	58.3
	무보험	81.0	38.0	28.8	53.7	57.4	54.1
	소계	86.4	79.7	86.6	84.7	78.9	78.1
외화표시		55.9	136.9	-3,389.1	73.0	-5,700.9	-47,606.5
기타		70.0	78.4	81.4	76.9	69.4	67.7
합계		82.1	79.8	87.8	83.0	78.0	77.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2017년 2/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과 해외원보험이 감소하였으나,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2조 3,688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71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해상보험은 2분기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하여 2.7% 감소한 1,633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의 경우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6.9% 증가한 4,294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1조 5,92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중 비중이 가장 큰 종합보험이 6.0%, 상해보험, 책임보험이 각각 1.8%, 6.1% 증가함²¹⁾
- 기술보험이 19.9% 감소하였고, 기타특종보험과 권원보험은 각각 24.8%, 7.5% 증가함

〈표 2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733	693	865	3,011	703	710
	증가율	-0.5	1.4	-3.1	-1.0	-2.3	-3.1
	구성비	3.3	3.5	4.1	3.5	3.2	3.0
해상	보험료	1,678	1,567	1,328	6,080	1,656	1,633
	증가율	-8.7	-13.9	-14.5	-14.3	9.9	-2.7
	구성비	7.4	8.0	6.2	7.2	7.4	6.9
보증	보험료	4,017	3,787	4,221	15,909	4,166	4,294
	증가율	-0.9	2.0	1.7	0.6	7.3	6.9
	구성비	17.8	19.3	19.8	18.7	18.7	18.1
특종	보험료	14,785	12,053	13,736	54,677	14,679	15,921
	증가율	8.3	4.5	5.0	5.9	4.1	7.7
	구성비	65.6	61.4	64.4	64.3	65.9	67.2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29	1,531	1,176	5,355	1,061	1,131
	증가율	18.5	-1.7	-16.7	0.9	-19.5	-14.9
	구성비	5.9	7.8	5.5	6.3	4.8	4.8
합계	보험료	22,543	19,632	21,327	85,032	22,265	23,688
	증가율	5.3	1.7	1.1	2.6	3.4	5.1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1) 특종보험에는 기술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권원보험, 기타특종보험 등이 포함되며, 2/4분기 원수보험료는 각각 668억 원, 2,982억 원, 3,687억 원, 4,409억 원, 106억 원, 4,068억 원임

〈시장점유율〉

■ 2017년 2/4분기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국내 상위 4사의 점유율만 하락하고 나머지 그룹은 모두 상승하거나 유지함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68.3%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한 27.5%를 나타냈으며 전업사는 전년동기 수준인 2.0%, 외국사는 0.1%p 상승한 2.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허핀달 지수는 전분기대비 37 상승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9 하락한 1,406을 기록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4사 ²⁾	69.1	68.3	68.5	68.7	67.6	68.3
국내 중·소형사 ²⁾	26.9	27.6	28.1	27.4	28.3	27.5
전업사 ³⁾	2.0	1.9	1.7	1.9	2.0	2.0
외국사 ³⁾	2.1	2.2	1.7	2.0	2.1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허핀달 지수 ⁴⁾	1,415	1,392	1,386	1,390	1,369	1,406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보험사, 국내·외 재보험사 및 외국계 단종보험회사이며, 2016년 3/4분기부터 (주)한국해양보증을 포함함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율과 사업비율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한 78.7%를 기록하였는데,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이 모두 개선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발생손해액이 0.3% 감소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2.0% 증가하면서, 손해율은 1.9%p 하락한 82.2%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경우 발생손해액이 0.3%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6.2% 증가하면서, 손해율은 4.6%p 개선된 77.5%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은 2.9%p 개선된 61.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비중이 가장 큰 특종보험의 손해율이 4.5%p 하락²²⁾하고 보증보험 손해율도 9.3%p 하락²³⁾하였기 때문임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4.1	83.9	83.8	84.3	83.9	82.2
	자동차보험	82.1	79.8	87.8	83.0	78.0	77.5
	일반손해보험	64.4	58.0	77.0	64.9	60.0	61.5
	화재보험	51.9	43.5	70.5	56.5	41.1	54.0
	해상보험	35.5	42.8	168.3	73.2	42.9	81.1
	보증보험	47.5	53.6	38.7	41.9	56.6	38.2
	특종보험	70.1	64.2	68.6	67.3	66.5	65.6
	해외원보험	85.8	105.8	171.1	108.7	90.6	79.3
	해외수재보험	66.0	39.6	110.1	69.4	44.6	62.6
	전체	81.3	79.9	83.8	81.7	79.9	78.7
사업비율		19.2	19.6	20.7	19.7	20.3	19.9
합산비율		100.5	99.5	104.5	101.4	100.3	98.6

주: 1)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그리고 합산비율(손해율 + 사업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2) 경과보험료 8.1% 증가, 발생손해액 1.1% 증가

23) 경과보험료 1.7% 증가, 발생손해액 18.2% 감소

- 2017년 2/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19.9%임
 -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p, 0.1%p 상승한 20.1%, 18.6%를 기록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 수준인 21.6%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9%p 하락한 98.6%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8%p, 4.4%p, 2.9%p 하락한 102.3%, 96.0%, 83.1%를 기록함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²⁴⁾〉

- 2017년 2/4분기 임직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와 동일하였고, 대리점, 중개사 채널의 원수 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설계사,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하락하였음
 - 임직원 비중은 전년동기 수준인 17.4%, 대리점, 중개사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p, 0.2%p 확대된 45.3%, 1.3%를 기록함
 - 설계사,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1.5%p 하락한 26.9%, 8.8%를 기록함

24)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27>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원수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표 27〉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규모와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임직원	35,605 (17.4)	28,986 (14.7)	71,997 (29.4)	167,134 (19.8)	33,475 (16.3)	36,569 (17.4)
설계사	55,529 (27.1)	55,220 (28.0)	54,582 (22.3)	220,203 (26.1)	56,469 (27.4)	56,465 (26.9)
대리점	89,752 (43.7)	90,519 (46.0)	96,694 (39.4)	365,498 (43.3)	92,836 (45.1)	94,921 (45.3)
중개사	2,273 (1.1)	1,842 (0.9)	2,241 (0.9)	8,047 (1.0)	2,331 (1.1)	2,689 (1.3)
방카슈랑스	21,101 (10.3)	19,442 (9.9)	18,727 (7.6)	80,878 (9.6)	20,015 (9.7)	18,421 (8.8)
공동인수	895 (0.4)	885 (0.4)	890 (0.4)	3,231 (0.4)	594 (0.3)	687 (0.3)
전체	205,157 (100.0)	196,894 (100.0)	245,131 (100.0)	844,991 (100.0)	205,719 (100.0)	209,752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7년 2/4분기 임직원, 교차설계사 수, 법인 대리점 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속설계사와 개인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89명 증가(0.3%)한 3만 2,487명을 기록함
- 전속설계사가 450명 감소(-0.6%)한 7만 9,685명이며, 교차설계사 수는 7,527명 증가(9.6%)한 8만 6,201명임
- 전체 대리점 수는 개인 대리점 수의 감소에도 법인 대리점 수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16개 증가(0.1%)한 2만 9,561개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임직원(명)	32,301	32,501	31,943	32,398	32,487
설계사(명)					
- 전속	82,719	82,885	81,331	80,135	79,685
- 교차	75,299	77,042	77,661	78,674	86,201
대리점(개)	30,293	29,941	29,769	29,545	29,561
- 개인	20,542	20,350	20,155	19,952	19,869
- 법인	9,751	9,591	9,614	9,593	9,692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5% 증가한 264조 3,087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3.7% 증가한 245.9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0.6% 증가한 18.4조 원을 나타냄

〈표 29〉 손해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총자산	금액	241.1	247.2	252.0	252.0	255.4	264.3
	증가율	3.8	2.5	1.9	11.5	1.3	3.5
일반계정 자산	금액	226.1	231.9	234.8	234.8	237.1	245.9
	증가율	4.0	2.6	1.3	10.5	0.9	3.7
특별계정 자산	금액	15.1	15.3	17.2	17.2	18.3	18.4
	증가율	2.0	1.9	11.9	27.7	6.5	0.6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3.0% 증가한 229조 4,075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7.0% 증가한 34조 9,012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의 경우 책임준비금, 기타부채, 특별계정 부채가 각각 전분기대비 2.6%, 9.2%, 2.3% 증가함
- 총자본의 경우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각각 전분기대비 2.2%, 5.8%, 15.9% 증가한 반면, 자본잉여금은 전분기와 동일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총자산	금액	241.1	247.2	252.0	252.0	255.4	264.3
	증가율	(3.8)	(2.5)	(1.9)	(11.5)	(1.3)	(3.5)
총부채	금액	207.2	211.4	219.5	219.5	222.7	229.4
	증가율	(2.8)	(2.0)	(3.8)	(11.6)	(1.4)	(3.0)
책임준비금	금액	178.1	182.1	186.9	186.9	190.7	195.7
	증가율	(2.8)	(2.3)	(2.6)	(10.6)	(2.0)	(2.6)
기타부채	금액	14.2	14.2	14.4	14.4	13.8	15.0
	증가율	(2.5)	(0.5)	(1.2)	(8.5)	(-4.6)	(9.2)
특별계정부채	금액	14.9	15.0	18.2	18.2	18.3	18.7
	증가율	(2.3)	(0.7)	(21.5)	(64.1)	(0.1)	(2.3)
총자본	금액	33.9	35.8	32.5	32.5	32.6	34.9
	증가율	(11.0)	(5.5)	(-9.3)	(10.8)	(0.5)	(7.0)
자본금	금액	2.5	2.7	2.8	2.8	2.8	2.8
	증가율	(0.3)	(7.2)	(4.8)	(15.0)	(-0.6)	(2.2)
자본잉여금	금액	2.8	2.8	3.1	3.1	3.1	3.1
	증가율	(4.6)	(0.0)	(11.2)	(14.7)	(1.0)	(0.0)
이익잉여금	금액	20.7	21.7	22.1	22.1	22.2	23.5
	증가율	(5.6)	(4.9)	(1.8)	(13.5)	(0.7)	(5.8)
자본조정	금액	-1.4	-1.4	-1.4	-1.4	-1.4	-1.4
	증가율	(0.0)	(0.1)	(-1.2)	(7.6)	(1.1)	(0.5)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9.3	10.0	5.8	5.8	5.9	6.8
	증가율	(29.7)	(7.4)	(-41.7)	(-2.2)	(0.4)	(15.9)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한 1조 3,362억 원
흑자를 기록함

-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감안한 보험영업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582억 원 감소한 483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 이익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079억 원 감소한 1조 7,759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6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대비 32.5% 증가한 1조 70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은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한 4조 2,795억 원 흑자를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18,507	18,813	19,139	74,598	18,897	19,046
	투자영업	2,168	3,123	1,866	9,781	4,404	1,680
	영업외	413	420	2,386	3,671	608	338
	소계	21,088	22,355	23,390	88,049	23,909	21,064
총비용	보험영업 ²⁾	18,914	18,938	20,215	76,644	19,218	19,095
	투자영업	284	1,605	168	3,027	2,452	-96
	영업외	457	525	2,376	3,878	681	321
	소계	19,654	21,068	22,760	83,549	22,352	19,319
수지차	보험영업	-407	-125	-1,076	-2,046	-321	-48.3
	투자영업	1,884	1,518	1,697	6,754	1,951	1,776
	영업외	-44	-105	10	-208	-73.7	16.7
	소계	1,434	1,287	631	4,500	1,557	1,744
법인세		310	287	193	1,031	354	408
당기순이익(A) ³⁾		1,124	1,000	438	3,469	1,202	1,336
		(31.7)	(62.8)	(8.4)	(28.8)	(32.6)	(18.9)
당기순이익(B) ⁴⁾		808	783	264	2,536	1,069	1,071
		(28.9)	(61.8)	(40.0)	(32.8)	(57.0)	(32.5)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 ⁵⁾		2,978	3,029	2,536	2,536	4,276	4,279
		(20.3)	(32.0)	(32.8)	(32.8)	(57.0)	(43.7)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함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표에 있는 수지차는 이에 해당함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6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5)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6개 손해보험회사의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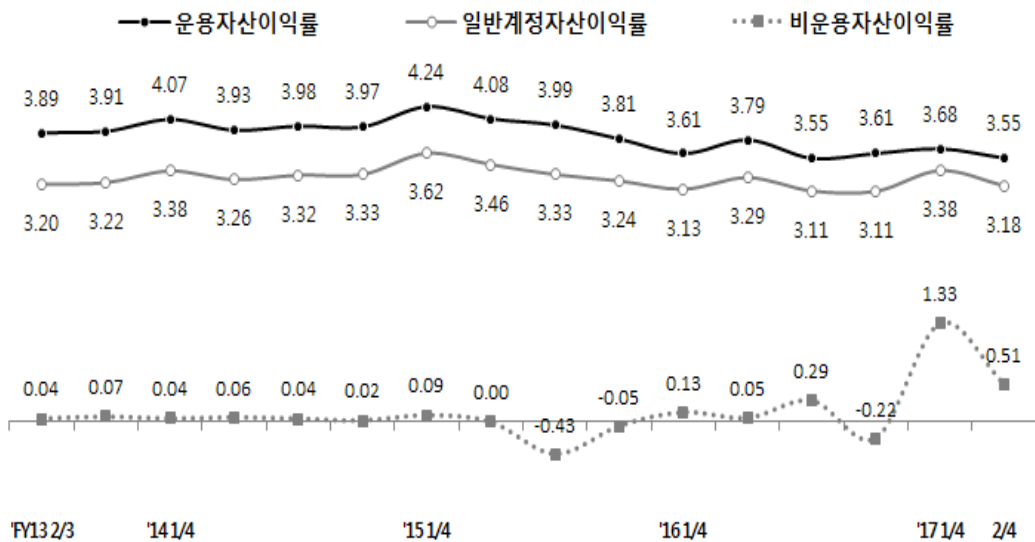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4%p 하락한 3.55%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의 이익률이 2.56%p 하락한 -0.26%를 기록하였으며, 유가증권 이익률도 0.57%p 하락한 3.21%를 기록함
 - 유가증권 구성항목 중 당기손익인식증권 이익률은 전년동기와 동일하였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이 각각 0.59%p, 0.92%p 하락한 3.35%, 2.92%를 기록함
 - 대출채권 이익률은 0.04%p 상승한 4.08%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6.13%p 상승한 10.15%를 기록함

〈그림 6〉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1),2)}

(단위: %)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이익률과 비운용자산이익률을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2/4분기 일반계정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7.81%, 대출채권 24.85%, 현금과 예금 2.72%, 부동산 2.50% 순으로 나타남²⁵⁾

○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34%p, 1.38%p 상승하였으며,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0.30%p, 0.41%p 하락함

〈표 32〉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

(단위: %, 억 원)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0	3.29	100.00	3.11	100.00	3.11	100.00	3.38	100.00	3.18
운용자산 계	86.87	3.79	87.09	3.55	87.60	3.61	87.55	3.68	87.88	3.55
현금과 예금	3.02	2.30	2.58	1.00	2.95	2.42	2.59	-4.98	2.72	-0.26
유가증권	57.47	3.78	57.77	3.52	57.21	3.54	57.08	3.27	57.81	3.21
○ 당기손익인식증권	3.36	1.98	3.34	2.14	2.93	1.58	2.74	1.54	2.80	1.98
- 주식	0.04	-1.73	0.05	20.90	0.03	26.61	0.03	0.35	0.03	18.30
- 채권 등	1.50	3.26	1.36	2.77	1.13	1.44	0.90	2.41	0.82	3.13
- 수익증권	1.82	1.13	1.93	1.11	1.77	1.16	1.81	1.05	1.95	1.09
○ 매도가능증권	48.97	3.94	50.16	3.58	49.02	3.72	48.42	3.42	48.84	3.35
- 주식	2.51	10.48	2.61	5.33	2.64	5.05	2.85	5.99	3.04	5.00
- 채권 등	39.90	3.57	40.74	3.52	39.35	3.78	38.35	3.20	38.51	3.07
- 수익증권	6.56	3.49	6.81	3.24	7.03	2.85	7.22	3.62	7.30	4.19
○ 만기보유증권	3.98	3.84	3.28	3.59	4.33	2.96	4.96	2.95	5.23	2.92
- 채권 등	3.98	3.84	3.28	3.59	4.33	2.96	4.96	2.95	5.23	2.92
- 수익증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15	2.51	0.98	4.99	0.93	4.38	0.97	1.98	0.94	1.40
대출채권	23.47	4.04	23.92	4.01	24.67	4.09	25.22	3.97	24.85	4.08
부동산	2.91	4.02	2.82	3.30	2.77	2.65	2.66	18.78	2.50	10.15
비운용자산	13.13	0.05	12.91	0.29	12.40	-0.22	12.45	1.33	12.12	0.51
일반계정자산 규모	2,260,595		2,318,517		2,348,346		2,370,617		2,459,025	
일반계정자산 비중	(93.76)		(93.79)		(93.19)		(92.84)		(93.04)	
총자산 규모	2,411,112		2,471,917		2,520,053		2,553,526		2,643,018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이익률에 해당하는 이익은 분기별 누계실적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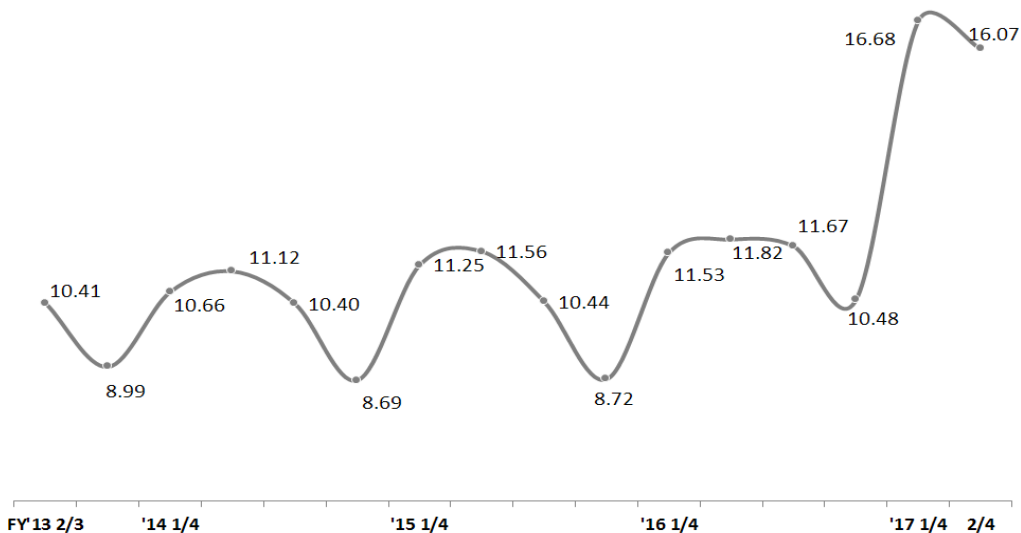
25)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본이익률(ROE)²⁶⁾〉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4.25%p 상승한 16.07%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표 30〉 참조)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였으며, 연간기준 당기 순이익(C)(〈표 31〉 참조)은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외국사와 전업사는 하락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19%p, 6.49%p 상승한 15.61%와 18.33%를 기록함
- 외국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8.76%p와 1.18%p 하락한 11.43%와 19.96%를 기록함

26)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6개 회사임

〈표 3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대형사	11.42	11.43	10.50	17.25	15.61
중·소형사	11.84	11.20	10.40	15.01	18.33
외국사	20.19	17.85	9.72	8.87	11.43
전업사	21.14	21.72	11.20	17.00	19.96
전체	11.82	11.67	10.48	16.68	16.07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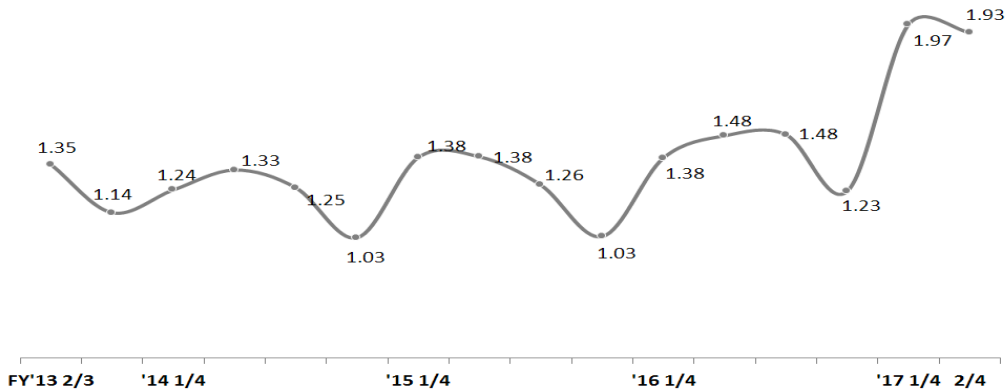
〈자산이익률(ROA)²⁷⁾〉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5%p 상승한 1.93%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총자산(〈표30〉 참조)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표 31〉 참조)은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했기 때문임

27)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A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16개 회사임

〈그림 8〉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산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외국사는 하락함

○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53%p, 0.40%p, 0.26%p 상승한 2.07%, 1.42%, 5.06%를 기록함

○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4.21%p 하락한 4.75%를 기록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대형사	1.54	1.58	1.35	2.24	2.07
중·소형사	1.02	0.97	0.81	1.14	1.42
외국사	8.96	7.93	4.15	3.67	4.75
전업사	4.80	5.07	2.49	4.09	5.06
전체	1.48	1.48	1.23	1.97	1.93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년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Ⅲ. 해외보험 동향

- 미국, 영국,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유니버설보험(6%), 정기보험(2%), 종신보험(7%)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함
 - 2017년 2/4분기 영국의 신규보험료¹⁾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89.5%)은 크게 증가했지만 보장성보험(-10.8%), 연금 상품(-38.3%)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함
 - 일본의 FY2017 1/4분기 신규가입금액²⁾은 단체보험(72.2%)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11.1%) 및 개인연금보험(-44.9%)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2.0% 감소함
 - 2017년 2/4분기 중국 인보험³⁾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14.7%)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8.4%), 상해보험(18.6%)의 증가세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함
- 미국, 일본, 중국의 손해보험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미국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으나, 총보험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2.4% 감소함
 - 일본의 FY2017 1/4분기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2.8%)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7년 2/4분기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⁴⁾는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함

1)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2)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라 신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성장성을 살펴보고 있음
3)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4) 중국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가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성장성을 살펴봄

1. 미국⁵⁾

가. 생명보험

■ 2017년 1/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규모⁶⁾는 유니버셜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함(〈표 1〉 참조)

- 유니버셜보험⁷⁾은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Indexed UL)⁸⁾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함
- 변액유니버셜보험⁹⁾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함
- 정기보험¹⁰⁾과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 7% 증가함

■ 2017년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의 경우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전년대비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종신보험은 확대되었고, 유니버셜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년 수준을 유지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셜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은 각각 37%임
-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정기보험은 각각 5%, 21%의 비중을 차지함

5)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6)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규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7) 해약환급금으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고, 사망률과 현재 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 따라 보험료가 유연한 생명보험임

8) 인덱스 지수와 연결된 유니버셜보험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지만 주가지수가 하락하여도 최저 보증금은 보장되는 상품임

9)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10) 특정 연령까지 혹은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	7	38	1	-1	-2	6	0	37	6	37
변액유니버설	-11	-3	7	-14	-12	-10	-9	-11	6	-3	5
정기	1	2	21	3	2	2	-1	1	21	2	21
종신	9	9	34	11	6	9	11	9	36	7	37
계	1	6	100	4	0	2	5	3	100	5	100
연납화보험료	2,919	10,687		2,537	2,729	2,646	3,075	10,981		2,649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7. 5),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7년 1/4분기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한 520억 달러임(〈표 2〉 참고)

○ 변액연금¹¹⁾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한 244억 달러를 기록함

○ 정액연금¹²⁾은 최근의 판매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하여 276억 달러를 기록함

11) 변액연금 상품을 일부라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을 일컬음

12) 최저보증 이율이 보장되는 독립 상품으로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 구조적 지급연금(Structured settlements annuity) 등이 있음

〈표 2〉 미국 개인연금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변액연금	보험료	31.7	133.0	26.6	26.9	25.9	25.3	104.7	24.4
	증가율	-7.3	-5.1	-17.9	-25.3	-21.3	-20.2	-21.3	-8.3
	비중	51.6	56.2	45.2	46.1	48.3	49.6	47.2	46.9
정액연금	보험료	29.7	103.6	32.3	31.5	27.7	25.7	117.2	27.6
	증가율	22.7	6.9	46.8	30.2	0.0	-13.5	13.1	-14.6
	비중	48.4	43.8	54.8	53.9	51.7	50.4	52.8	53.1
합계	보험료	61.4	236.6	58.9	58.4	53.6	51.0	221.9	52.0
	증가율	5.1	-0.2	8.3	-3.0	-11.6	-16.9	-6.2	-11.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7. 5),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7년 1/4분기 소득보상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Guaranteed Renewable¹⁴⁾와 Non-cancellable¹⁵⁾

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0.4% 증가한 1억 5,763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¹⁶⁾은 전년동기대비 46.9% 증가한 8,132만 달러임

○ Non-cancellable은 7,631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13)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불능이 되었을 경우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임

14)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15)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16)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표 3〉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약 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115.3	378.2	93.9	85.3	82.4	116.0	377.6	115.3
		증가율	73.0	26.6	-13.6	7.2	10.2	0.7	-0.2	22.8
		구성비	70.1	69.3	70.6	68.6	65.4	72.1	69.4	75.7
	Non- cancellable	건수	49.1	167.6	39.2	39.1	43.6	44.8	166.7	37.0
		증가율	12.0	8.0	16.2	9.4	-11.0	-8.8	-0.5	-5.5
		구성비	29.9	30.7	29.4	31.4	34.6	27.9	30.6	24.3
	전체	건수	164.4	545.8	133.1	124.4	126.0	160.8	544.3	152.3
		증가율	48.8	-2.4	-6.5	7.9	1.8	-2.2	-0.3	14.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69.1	227.7	55.4	53.0	49.1	69.8	227.3	81.3
		증가율	57.5	-5.6	-13.2	0.1	17.5	1.0	-0.2	46.9
		구성비	42.7	37.6	42.3	39.8	35.0	43.7	40.3	51.6
	Non- cancellable	보험료	92.7	335.3	75.5	80.3	91.2	89.9	336.9	76.3
		증가율	3.7	-0.7	12.4	3.6	-6.9	-3.0	0.5	1.0
		구성비	57.3	62.4	57.7	60.2	65.0	56.3	59.7	48.4
	전체	보험료	161.8	563.0	130.9	133.3	140.3	159.7	564.2	157.6
		증가율	21.5	-2.6	-0.1	2.2	0.4	-1.3	0.2	20.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7, 6),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라. 손해보험

■ 2017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1,35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9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69.0%로 전년동기대비 2.0%p 상승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7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2.2% 감소한 77억 달러임

○ 총보험영업이익은 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30억 달러 감소한 수치임

○ 총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약 144억 달러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118억 달러임

- 실현자본이익은 2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함

■ 2017년 1/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7.5%에서 2.1%p 상승한 99.6%,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동기 7.9%에서 3.5%p 하락한 4.4%를 나타냄

〈표 4〉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금액	21,513	514,422	130,075	134,498	139,163	124,402	528,221	135,379
	증가율	1.5	3.5	3.2	3.0	2.3	2.4	2.7	4.0
발생손해액	금액	90,135	350,280	87,090	96,684	96,143	98,399	378,277	93,462
	증가율	10.3	4.6	6.3	8.1	8.4	9.2	8.0	7.4
원수손해율		74.2	68.1	67.0	71.9	69.1	79.1	71.6	69.0
보험영업이익	금액	2,950	11,463	2,917	-3,486	61	-2,032	-2,447	-4
	증가율	-68.2	-21.6	-39.1	740.0	-98.5	-168.9	-121.3	-100.1
계약자 배당금	금액	1,258	2,515	753	265	279	1,002	2,302	725
	증가율	1.5	4.1	4.1	2.7	3.0	-20.3	-8.5	-4.1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1,693	8,949	2,164	-3,751	-218	-3,034	-4,749	-728
	증가율	-58.4	-26.7	-47.0	457.4	-105.8	-279.2	-153.1	-132.3
투자영업이익	금액	12,380	47,242	10,893	11,179	10,968	13,305	46,341	11,805
	증가율	4.0	1.9	-6.6	-4.7	-4.3	7.5	-1.9	8.4
실현자본이익	금액	538	9,381	2,284	2,156	1,176	1,700	7,314	2,558
	증가율	-63.3	-8.7	-51.3	-38.4	72.9	216.0	-22.0	12.1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2,918	56,622	13,177	13,334	12,144	15,005	53,654	14,363
	증가율	-3.4	0.0	-19.4	-12.5	0.1	16.2	-5.2	9.1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4,324	57,652	13,475	7,802	11,109	10,145	42,616	5,409
	증가율	-25.0	3.1	-13.4	-34.8	-28.8	-29.2	-26.1	-60.1
당기순이익	금액	12,677	56,826	13,313	8,304	10,134	10,789	42,609	7,733
	증가율	-29.8	1.7	-26.6	-35.3	-22.4	-14.9	-25.0	-42.2
자기자본 (Surplus) ³⁾	금액	74,151	674,151	676,256	680,638	688,278	700,931	700,931	709,034
	증가율	-0.2	-0.2	0.6	1.2	3.7	4.0	4.0	4.8
지급준비금	금액	583,145	583,145	586,036	589,713	594,680	597,175	597,175	592,798
	증가율	1.3	1.3	1.8	1.8	2.4	2.4	2.4	1.2
자기자본이익률 ⁴⁾		7.5	8.4	7.9	4.9	5.9	6.2	6.1	4.4
합산비율		100.4	97.8	97.5	102.1	99.0	104.1	100.7	99.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3)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을 의미함

4)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17, 6),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Quarter 2017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 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 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 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3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2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¹⁷⁾

가. 생명보험¹⁸⁾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¹⁹⁾는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한 198억 3,557만 파운드를 기록함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한 2억 8,867만 파운드임
-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9.5% 증가한 40억 4,822만 파운드임
 - 투자형과 역외영업 상품의 저조한 실적에도 ISA 상품의 편입으로 전체 투자 및 저축성 보험의 신규보험료가 증가함
- 연금 상품²⁰⁾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3% 감소한 122억 4,389만 파운드임
 - 순수개인형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3.1% 증가한 48억 7,494만 파운드임
 - 단체개인형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1.8% 증가한 32억 3,023만 파운드임
 -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1.3% 감소한 41억 3,873만 파운드임

■ 2017년 2/4분기 퇴직소득보험²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한 32억 5,478만 파운드임

1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8) 영국 손해보험시장 실적은 연도별 자료만 발표되며(분기별 미발표), 2015년 연간 손해보험 자료는 “보험 동향 2016년 겨울호”를 참조하기 바람. 2016년 연간 손해보험 자료는 “보험동향 2017년 겨울호”에 게재 예정임

19)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20) 연금 상품은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인 개인연금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또 다시 개인의 보험료 부담형태에 따라 순수개인형(Individual Pension)과 단체개인형(Contract-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순수개인형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이 포함됨 단체개인형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이 포함됨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은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이 포함됨

21)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표 5〉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323.7	288.8	280.6	1,183.9	271.1	288.7
	증가율	7.0	0.8	-3.0	1.0	-6.8	-10.8
	구성비	1.3	1.9	1.5	1.6	1.5	1.5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vestments & Saving)	금액	2,136.7	2,005.2	1,964.3	8,183.9	3,412.7	4,048.2
	증가율	5.4	-4.8	-9.2	0.2	64.3	89.5
	구성비	8.5	13.2	10.6	11.1	19.0	20.4
투자형 (Investment)	금액	1,265.9	1,223.6	1,230.1	4,941.5	1,165.9	1,089.9
	증가율	10.6	-0.1	2.2	5.3	-4.6	-13.9
	구성비	5.0	8.1	6.7	6.7	6.5	5.5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864.1	773.7	728.2	3,214.6	845.2	955.3
	증가율	-1.4	-11.4	-23.7	-6.9	-0.4	10.6
	구성비	3.4	5.1	3.9	4.3	4.7	4.8
ISA	금액	-	-	-	-	1397.6	1999.2
	증가율	-	-	-	-	-	-
	구성비	-	-	-	-	7.8	10.1
연금 상품 (Pension)	금액	19,859.7	10,000.4	13,613.0	53,795.7	11,184.8	12,243.9
	증가율	15.9	-32.3	-13.4	-7.0	8.4	-38.3
	구성비	78.8	66.1	73.7	72.8	62.4	61.7
순수개인형 (Individual)	금액	2,988.8	2,873.7	3,389.4	12,452.1	4,505.4	4,874.9
	증가율	-14.8	-14.7	2.5	-6.9	40.8	63.1
	구성비	11.9	19.0	18.3	16.8	25.1	24.6
단체개인형 (Contract-Based)	금액	2,450.1	1,864.2	2,598.0	9,321.9	2,494.4	3,230.2
	증가율	12.1	-9.1	-22.1	-2.1	3.5	31.8
	구성비	9.7	12.3	14.1	12.6	13.9	16.3
퇴직연금 (Trust-based)	금액	14,420.8	5,262.5	7,625.5	32,021.6	4,185.0	4,138.7
	증가율	26.1	-43.7	-16.1	-8.4	-11.2	-71.3
	구성비	57.2	34.8	41.3	43.3	23.3	20.9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2,881.4	2,843.4	2,621.5	10,774.8	3,056.9	3,254.8
	증가율	18.0	-1.3	2.5	10.9	25.9	13.0
	구성비	11.4	18.8	14.2	14.6	17.1	16.4
전체	금액	25,201.5	15,137.9	18,479.4	73,938.4	17,925.5	19,835.6
	증가율	15.1	-24.5	-10.9	-3.9	18.6	-2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2017년부터 투자 및 저축성 보험 상품 통계에 ISA 실적이 집계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7년 2/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²²⁾이 가장 높고, 無자문(Non-advised),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²³⁾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판매 중 독립자문 채널 판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60.5%임
 - 종목별로는 개인연금(78.2%), 보장성보험(68.7%), 투자 및 저축보험(22.2%), 퇴직연금(17.8%) 순임
- 정기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3%p 하락한 12.2%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24.0%), 보장성보험(16.3%), 개인연금(14.4%), 퇴직연금(6.9%) 순으로 나타남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한 27.3%임
 - 종목별로는 퇴직연금(75.3%), 투자 및 저축보험(53.8%), 보장성보험(15.0%), 개인연금(7.5%) 순임

■ 2017년 2/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독립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2.1%p 하락한 69.8%임
 - 종목별로는 개인연금(84.3%), 투자 및 저축보험(76.0%), 퇴직소득보험(53.0%), 퇴직연금(37.5%) 순임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6.7%p 상승한 10.8%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의 제한적 자문 채널 모집 비중이 20.9%로 가장 높으며, 퇴직소득보험(11.4%), 개인연금(9.3%), 퇴직연금(2.6%) 순임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19.4%로 전년동기대비 5.4%p 상승함
 - 종목별로는 퇴직연금의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59.9%로 가장 높고, 퇴직소득보험이 35.6%로 나타남

22)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3)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투자 및 저축보험(3.1%), 개인연금(6.4%)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표 6〉 2017년 2/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22.2	76.0	24.0	20.9	53.8	3.1
개인연금	78.2	84.3	14.4	9.3	7.5	6.4
퇴직연금	17.8	37.5	6.9	2.6	75.3	59.9
보장성보험	68.7	n/a	16.3	n/a	15.0	n/a
퇴직소득보험	-	53.0	-	11.4	-	35.6
전체 ³⁾	60.5	69.8	12.2	10.8	27.3	19.4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 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 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7년 2/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한 2억 2,0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한 1,370만 파운드로 전체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의 6.3%를 차지함

- 종목별로 역외영업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36.9%, 보장성보험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6.3%, 개인연금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8.2% 감소한 2억 630만 파운드이며 방카슈랑스 채널의 93.8%를 차지함

-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일시납 보험 상품 판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및 저축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7.4% 감소하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외영업 신규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8.0% 증가함
-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 상품 중 개인연금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42.2% 증가하고, 퇴직소득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6.8% 감소함

〈표 7〉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6				2017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	-	-	-	-	0.0	130.6	124.0	100.9	486.5	104.4	94.8
	증가율	-100.0	-100.0	-100.0	-100.0	-	-	16.3	-6.3	-5.9	3.6	-20.3	-27.4
개인연금	금액	3.2	2.6	2.9	13.0	2.6	3.2	23.7	16.9	18.6	86.0	25.8	33.6
	증가율	-18.6	-49.1	-31.1	-24.2	-38.4	-1.1	11.7	46.9	47.9	37.1	-4.1	42.2
퇴직연금	금액	-	-	-	-	-	-	-	0.0	-	0.0	-	-
	증가율	-100.0	-	-	-100.0	-	-	-100.0	-	-	-99.5	-100.0	-
역외영업	금액	0.0	0.1	0.1	0.2	0.0	0.0	51.1	56.5	64.2	218.3	53.5	70.4
	증가율	20.9	85.8	18.3	40.8	-21.9	-36.9	-44.0	-21.8	-14.6	-27.5	14.9	38.0
보장성보험	금액	11.2	11.8	10.3	44.9	10.8	10.5	2.3	4.1	2.8	12.8	0.0	0.0
	증가율	-3.7	-5.2	-15.6	-14.3	-6.8	-6.3	-36.3	-12.0	-25.0	-19.2	-100.0	-100.0
퇴직소득보험 ¹⁾	금액	-	-	-	-	-	0.0	8.3	17.1	26.2	8.4	20.4	5.3
	증가율	-	-	-	-	-	0.0	-8.3	151.9	297.4	-90.7	-71.7	-36.8
전체	금액	14.5	14.5	13.2	58.1	13.5	13.7	224.7	227.7	206.9	875.7	189.0	206.3
	증가율	-8.6	-18.2	-20.3	-17.8	-15.3	-5.3	-5.4	0.1	-0.1	-0.8	-12.7	-8.2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 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순수개인형연금
Work-based Pension	단체개인형연금
Trust-based Pension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²⁴⁾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17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0조 1,297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함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FY2016 3/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FY2017 1/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한 7조 9,858억 엔임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이 감소세로 전환됨

〈표 8〉 일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6					FY2017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금액	109,948	108,459	100,853	105,433	424,693	101,297
	증가율	-4.5	-9.3	-8.9	-14.1	-9.3	-7.9
생명보험	금액	86,757	86,244	78,511	83,079	334,591	77,738
	증가율	-5.4	-10.3	-11.4	-17.8	-11.4	-10.4
손해보험	금액	23,191	22,215	22,342	22,353	90,101	23,559
	증가율	-0.8	-5.5	1.2	3.1	-0.6	1.6
지급보험금	금액	82,151	75,023	77,851	81,662	316,687	79,858
	증가율	-14.3	-11.5	-10.1	-1.9	-9.6	-2.8
생명보험	금액	68,361	63,437	65,887	69,266	266,951	68,733
	증가율	-19.8	-13.9	-10.8	-3.2	-12.3	0.5
손해보험	금액	13,790	11,586	11,964	12,396	49,736	11,125
	증가율	29.1	4.1	-6.0	6.5	7.7	-19.3

주: 1) 전년동기대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

24)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나. 생명보험²⁵⁾

〈신규가입금액〉

- FY2017 1/4분기 생명보험 신규가입금액의 경우 단체보험이 증가하였지만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2.0% 감소한 17조 6,398억 엔을 기록함
 - 개인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15조 3,469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9%, 4.2%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4.7% 감소하였지만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함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2.5% 감소한 1,953억 엔으로 집계됨
 - 개인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4.9% 감소한 1조 1,758억 엔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7.2%, 24.4% 감소함
 - 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2.2% 증가한 1조 1,171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0.1%, 130.1% 증가함

25)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계약종목에 따라 분기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목별 생명보험 변화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신규가입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함. 여기서 말하는 가입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보험금)을 의미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가입금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6					FY2017
		1/4	2/4	3/4	4/4	연간	1/4
개인	금액	172,701	176,345	169,517	217,511	736,072	153,469
	증가율	-2.8	-3.9	-7.7	15.8	0.5	-11.1
	구성비	86.1	85.6	82.9	81.7	83.9	87.0
	사망	금액	139,443	144,838	141,438	185,249	610,967
		증가율	-5.6	-5.8	-7.3	18.8	0.2
		구성비	69.5	70.3	69.2	69.6	71.7
	종신보험	금액	33,328	35,109	31,714	43,622	143,773
		증가율	-11.4	-6.3	-15.2	1.8	-7.5
	정기보험	금액	77,190	84,046	84,434	114,103	359,773
		증가율	3.5	5.0	4.2	37.2	12.8
	생사혼합	금액	29,144	28,200	24,909	27,258	109,511
		증가율	10.0	10.1	-7.1	0.3	3.2
		구성비	14.5	13.7	12.2	10.2	12.5
	양로보험 ²⁾	금액	15,944	15,035	9,354	11,753	52,087
		증가율	31.5	24.0	-26.1	-9.4	4.4
	기타	금액	11,105	11,368	13,674	13,147	49,293
		증가율	-10.0	-0.9	12.8	7.8	2.4
	생존	금액	4,114	3,307	3,170	5,003	15,594
		증가율	20.8	-17.8	-27.5	6.0	-5.6
		구성비	2.1	1.6	1.5	1.9	1.8
개인연금	금액	21,350	23,131	26,059	40,403	110,942	11,758
		증가율	6.1	21.2	30.0	66.2	32.8
		구성비	10.6	11.2	12.7	15.2	12.6
	정액연금	금액	19,207	20,903	24,619	38,636	103,365
		증가율	19.6	37.7	47.1	78.4	48.4
	변액연금	금액	2,143	2,227	1,440	1,766	7,577
		증가율	-47.1	-42.9	-56.4	-33.2	-45.5
	단체보험	금액	6,488	6,569	8,950	8,301	30,308
		증가율	-30.8	20.7	48.5	-53.6	-21.8
		구성비	3.2	3.2	4.4	3.1	3.5
단체보험	단체정기 ³⁾	금액	4,176	4,140	6,486	5,854	20,656
		증가율	-44.5	4.7	43.7	7.3	-3.7
	단체산용생명	금액	2,312	2,429	2,464	2,447	9,652
		증가율	24.8	63.4	62.8	-80.3	-44.2
	합계	금액	200,539	206,044	204,526	266,214	877,322
		증가율	-3.2	-0.9	-2.5	15.7	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또는 고도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지급률〉

■ FY2017 1/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은 88.4%로 전분기보다 5.0%p 상승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한 7조 7,738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한 6조 8,733억 엔을 나타냄

〈표 10〉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FY2017
		4/4	1/4	2/4	3/4	4/4	1/4
수입보험료	금액	101,025	86,757	86,244	78,511	83,079	77,738
	증가율 ¹⁾	0.7	-5.4	-10.3	-11.4	-17.8	-10.4
지급보험금	금액	71,583	68,361	63,437	65,887	69,266	68,733
	증가율	-17.1	-19.8	-13.9	-10.8	-3.2	0.5
지급률 ²⁾		70.9	78.8	73.6	83.9	83.4	88.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7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0.6% 증가한 377조 7,004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 규모는 전분기보다 각각 4.4%, 1.0%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은 전분기와 유사함

○ 반면, 단기자금, 금전신탁, 대출금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9.7%, 6.1%, 1.2%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 지방채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0.6% 증가한 311조 5,576억 엔을 나타냄

- 국채,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0.9%, 1.3% 감소하였으나 회사채, 주식, 외화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0.2%, 2.3%, 3.0% 증가함

〈표 11〉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엔, %)

구분 ²⁾	FY2016								FY2017	
	1/4		2/4		3/4		4/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5,944	1.8	79,745	5.0	68,571	-14.0	75,350	9.9	72,031	-4.4
단기자금	20,068	56.7	14,151	-29.5	13,423	-5.1	12,010	-10.5	13,171	9.7
매입금전채권	23,100	-6.0	19,419	-15.9	17,889	-7.9	16,335	-8.7	16,177	-1.0
금전신탁	36,780	-0.6	39,368	7.0	43,551	10.6	45,439	4.3	48,192	6.1
유가증권	2,969,991	-1.2	3,011,589	1.4	3,112,029	3.3	3,097,145	-0.5	3,115,576	0.6
- 국채	1,483,404	-0.2	1,476,101	-0.5	1,483,738	0.5	1,485,538	0.1	1,472,269	-0.9
- 지방채	135,448	0.2	135,355	-0.1	133,353	-1.5	129,821	-2.6	128,175	-1.3
- 회사채	254,478	0.3	262,224	3.0	262,206	0.0	258,242	-1.5	258,854	0.2
- 주식	186,051	-6.1	191,161	2.7	213,464	11.7	215,146	0.8	220,147	2.3
- 외화증권	766,658	-2.5	799,271	4.3	862,150	7.9	851,974	-1.2	877,611	3.0
대출금	346,025	-1.1	342,944	-0.9	344,534	0.5	340,715	-1.1	344,920	1.2
부동산	59,251	-3.8	61,118	3.2	61,129	0.0	60,274	-1.4	60,259	0.0
운용자산 ³⁾	3,568,750	-0.8	3,601,968	0.9	3,691,190	2.5	3,686,115	-0.1	3,709,204	0.6
비운용자산	100,891	39.3	77,001	-23.7	66,190	-14.0	68,937	4.1	67,800	-1.6
총자산 ⁴⁾	3,669,641	-0.1	3,678,969	0.3	3,757,380	2.1	3,755,051	-0.1	3,777,004	0.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7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한 3,147억 엔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대비 1.1%p 하락한 5.4%를 기록함

○ 자본은 23조 3,492억 엔으로 전분기에 비해 2.3% 증가함

■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3%를 기록함

○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0.6% 증가한 377조 7,004억 엔을 기록함

〈표 12〉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FY2017
		4/4	1/4	2/4	3/4	4/4	1/4
당기순이익	금액	1,625	3,421	3,527	3,338	3,683	3,147
	증가율 ¹⁾	-58.0	-31.3	4.0	-1.5	126.6	-8.0
자본	금액	233,989	221,588	220,063	227,347	228,308	233,492
	증가율 ²⁾	-3.7	-5.3	-0.7	3.3	0.4	2.3
총자산	금액	3,671,679	3,669,641	3,678,969	3,757,381	3,755,051	3,777,004
	증가율 ²⁾	-0.1	-0.1	0.3	2.1	-0.1	0.6
자본이익률 ³⁾		2.8	6.2	6.4	5.9	6.5	5.4
총자산이익률 ³⁾		0.2	0.4	0.4	0.4	0.4	0.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연율화 수치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FY2017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2조 3,559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7%, 1.5%, 0.7% 증가함
 - 자동차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 0.6% 증가한 1조 467억 엔, 2,611억 엔으로 집계됨
 -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한 2,724억 엔을 나타냈으며,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3,581억 엔을 기록함

〈표 1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6					FY2017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	3,437	3,411	3,727	3,546	14,122	3,460
	증가율	-9.0	-32.3	0.4	4.7	-11.3	0.7
	구성비	14.8	15.4	16.7	15.9	15.7	14.7
해상	보험료	535	462	430	480	1,907	543
	증가율	-11.2	-14.5	-18.3	-6.7	-12.7	1.5
	구성비	2.3	2.1	1.9	2.1	2.1	2.3
운송	보험료	171	150	157	162	641	173
	증가율	-0.3	-3.1	-2.5	-2.4	-2.0	0.7
	구성비	0.7	0.7	0.7	0.7	0.7	0.7
자동차	보험료	10,344	9,936	10,096	10,152	40,528	10,467
	증가율	2.0	1.7	1.1	1.4	1.5	1.2
	구성비	44.6	44.7	45.2	45.4	45.0	44.4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95	2,503	2,592	2,732	10,423	2,611
	증가율	-3.8	-2.5	-8.1	10.0	2.1	0.6
	구성비	11.2	11.3	11.6	12.2	11.6	11.1
상해	보험료	2,802	2,529	2,337	2,198	9,865	2,724
	증가율	-3.0	2.5	-2.7	-1.7	-1.3	-2.8
	구성비	12.1	11.4	10.5	9.8	10.9	11.6
특종	보험료	3,306	3,224	3,002	3,083	12,615	3,581
	증가율	7.0	8.1	6.5	7.0	7.2	8.3
	구성비	14.3	14.5	13.4	13.8	14.0	15.2
합계	보험료	23,191	22,215	22,342	22,353	90,101	23,559
	증가율	-0.8	-5.5	-0.4	3.1	-0.6	1.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률〉

■ FY2017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47.2%로 전분기보다 8.3%p 하락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2조 3,559억 엔을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9.3% 감소한 1조 1,125억 엔을 기록함

〈표 14〉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FY2017
		4/4	1/4	2/4	3/4	4/4	1/4
원수보험료	금액	21,682	23,191	22,215	22,342	22,353	23,559
	증가율 ¹⁾	-1.3	-0.8	-5.5	1.2	3.1	1.6
지급보험금	금액	11,640	13,790	11,586	11,964	12,396	11,125
	증가율	-1.0	29.1	4.1	-6.0	6.5	-19.3
지급률 ²⁾		53.7	59.5	52.2	53.6	55.5	47.2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7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0.2% 증가한 31조 6,269억 엔으로 집계됨

-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1.4%, 153.2% 증가함
- 반면, 단기자금,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 대출금, 부동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42.7%, 10.3%, 0.5%, 4.0%, 1.0% 감소함
-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외화증권의 증가가 국채, 지방채 등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전분기와 유사한 23조 7,852억 엔을 기록함
 -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타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2.4%, 1.6%, 0.2%, 1.1% 감소하였으나, 주식, 외화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1.6%, 0.4% 증가함

〈표 15〉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엔, %)

구분 ²⁾	FY2016								FY2017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14,905	-12.5	18,525	24.3	19,288	4.1	17,112	-11.3	19,061	11.4
단기자금	2,415	493.4	1,032	-57.3	150	-85.5	2,368	1,478.9	1,358	-42.7
환매조건부채권	1,310	15.9	2,100	60.3	1,420	-32.4	970	-31.7	870	-10.3
매입금전채권	2,073	5.5	2,045	-1.3	1,036	-49.3	895	-13.6	2,266	153.2
금전신탁	1,890	-5.2	2,071	9.6	2,011	-2.9	2,228	10.8	2,217	-0.5
유가증권	220,815	-4.4	224,893	1.8	234,717	4.4	237,793	1.3	237,852	0.0
- 국채	58,694	-0.4	57,319	-2.3	55,364	-3.4	53,627	-3.1	52,342	-2.4
- 지방채	3,292	-4.1	3,196	-2.9	3,144	-1.6	3,095	-1.6	3,045	-1.6
- 회사채	25,978	-0.7	26,647	2.6	26,447	-0.8	26,572	0.5	26,520	-0.2
- 주식	59,534	-10.8	63,861	7.3	72,105	12.9	70,694	-2.0	71,820	1.6
- 외화증권	70,998	-2.8	71,377	0.5	75,108	5.2	81,133	8.0	81,484	0.4
- 기타증권	2,318	-11.9	2,492	7.5	2,549	2.3	2,672	4.8	2,641	-1.1
대출금	17,784	-6.6	19,043	7.1	19,561	2.7	18,870	-3.5	18,118	-4.0
부동산	9,454	-0.4	9,405	-0.5	9,352	-0.6	9,373	0.2	9,279	-1.0
운용자산	270,645	-4.0	279,116	3.1	287,536	3.0	289,609	0.7	291,021	0.5
비운용자산 ³⁾	29,650	12.0	24,798	-16.4	25,475	2.7	25,970	1.9	25,247	-2.8
총자산	300,296	-2.7	303,914	1.2	313,013	3.0	315,579	0.8	316,269	0.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가입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 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²⁶⁾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17년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7,27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함
 -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됨
- 2017년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2,480억 위안임
 -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됨
-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1,048억 위안으로 집계됨

〈표 16〉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11,979	6,834	6,355	5,791	30,959	15,866	7,274
	증가율 ²⁾	42.2	29.5	19.1	10.5	27.5	32.4	6.4
인보험	금액	9,825	4,686	4,287	3,437	22,235	13,464	4,824
	증가율	52.4	44.7	24.4	8.8	36.5	37.0	2.9
손해보험	금액	2,154	2,148	2,069	2,354	8,724	2,402	2,450
	증가율	8.9	5.3	9.3	13.0	9.1	11.5	14.1
지급보험금	금액	2,891	2,371	2,488	2,762	10,513	3,305	2,480
	증가율	25.1	25.3	21.0	14.4	21.2	14.3	4.6
인보험	금액	1,815	1,281	1,332	1,358	5,787	2,170	1,321
	증가율	29.9	31.7	33.4	22.1	29.2	19.5	3.1
손해보험	금액	1,076	1,090	1,156	1,405	4,726	1,135	1,159
	증가율	17.6	18.4	9.3	7.9	12.7	5.5	6.4
사업비	금액	838	930	917	1,210	3,896	986	1,048
	증가율	19.9	17.2	13.1	17.1	16.7	17.6	12.6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6)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7년 2/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1.5% 증가한 16조 4,304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14조 4,999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3.0%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8.4% 감소한 1조 9,306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 주식 및 주식형 펀드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채권, 기타 자산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치금, 주식 및 주식형 펀드는 각각 2조 1,593억 위안, 1조 7,900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8.5%, 0.1%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14.6%, 11.1%에서 13.1%, 10.9%로 하락함
 - 채권, 기타 자산은 전분기대비 각각 6.9%, 5.8% 증가한 4조 9,654억 위안, 5조 5,852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2%, 34.0%로 전분기에 비해 1.5%p, 1.4%p 상승함

〈표 17〉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운용자산계	금액	119,943	125,629	128,286	133,911	133,911	140,736	144,999
	증가율 ³⁾	7.3	4.7	2.1	4.4	19.8	5.1	3.0
	구성비	86.6	88.1	87.7	88.6	88.6	87.0	88.3
예치금	금액	26,510	23,605	22,961	24,844	24,844	23,605	21,593
	증가율	8.9	-11.0	-2.7	8.2	2.0	-5.0	-8.5
	구성비	19.1	16.5	15.7	16.4	16.4	14.6	13.1
채권	금액	40,392	42,078	43,435	43,050	43,050	46,433	49,654
	증가율	5.1	4.2	3.2	-0.9	12.0	7.9	6.9
	구성비	29.2	29.5	29.7	28.5	28.5	28.7	30.2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금액	16,821	16,959	18,282	17,788	17,788	17,922	17,900
	증가율	-0.9	0.8	7.8	-2.7	4.8	0.8	-0.1
	구성비	12.1	11.9	12.5	11.8	11.8	11.1	10.9
기타 자산 ⁴⁾	금액	36,219	42,986	43,608	48,228	48,228	52,776	55,852
	증가율	13.1	18.7	1.4	10.6	50.6	9.4	5.8
	구성비	26.1	30.1	29.8	31.9	31.9	32.6	34.0
비운용자산계 ⁵⁾	금액	18,592	17,031	18,033	17,258	17,258	21,079	19,306
	증가율	57.5	-8.4	5.9	-4.3	46.2	22.1	-8.4
	구성비	13.4	11.9	12.3	11.4	11.4	13.0	11.7
총자산	금액	138,535	142,661	146,319	151,169	151,169	161,815	164,304
	증가율	12.1	3.0	2.6	3.3	22.3	7.0	1.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임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²⁷⁾

〈수입보험료〉

- 2017년 2/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4,82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함
-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고 건강보험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상해보험 증가세는 소폭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3,578억 위안,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한 230억 위안이었음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1,016억 위안을 기록함

〈표 18〉 인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료	9,825	4,686	4,287	3,437	22,235	13,464	4,824
	증가율 ²⁾	52.4	44.7	24.4	8.8	36.5	37.0	2.9
생명보험	보험료	8,459	3,302	3,023	2,658	17,442	11,631	3,578
	증가율	50.2	33.3	12.6	8.7	31.7	37.5	8.4
건강보험	보험료	1,169	1,191	1,071	612	4,042	1,600	1,016
	증가율	79.3	100.4	81.3	6.7	67.7	36.9	-14.7
상해보험	보험료	197	194	193	166	750	233	230
	증가율	22.2	15.4	14.2	20.8	18.0	18.3	18.6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7)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지급보험금〉

- 2017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32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함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1,00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으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각각 263억 위안, 5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5.2%, 29.0% 증가함

〈표 19〉 인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금	1,815	1,281	1,332	1,358	5,787	2,170	1,321
	증가율 ²⁾	29.9	31.7	33.4	22.1	29.2	19.5	3.1
생명보험	보험금	1,544	1,031	1,036	992	4,603	1,837	1,006
	증가율	29.2	32.5	34.5	20.7	29.1	19.0	-2.4
건강보험	보험금	227	210	250	314	1,001	284	263
	증가율	34.6	29.7	34.5	27.1	31.2	24.9	25.2
상해보험	보험금	44	41	46	52	183	49	53
	증가율	34.1	19.8	9.7	21.3	20.5	11.2	29.0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률〉

- 2017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률은 전분기 16.1%에서 27.4%로 크게 상승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률은 각각 28.1%, 25.9%, 22.9%로 집계됨

〈표 20〉 인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18.5	27.3	31.1	39.5	26.0	16.1	27.4
생명보험		18.2	31.2	34.3	37.3	26.4	15.8	28.1
건강보험		19.5	17.6	23.3	51.2	24.8	17.8	25.9
상해보험		22.5	21.0	24.1	31.0	24.4	21.1	22.9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7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1/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2.2%로 전분기에 비해 1.8%p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전분기 6.0%에서 7.8%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⁸⁾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5%p 상승한 55.3%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Generali China Life, Evergrande Life임

〈표 21〉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51.2	53.7	56.2	50.2	48.4	54.8	55.3
		중·소형사 ³⁾	42.5	40.7	38.0	41.4	45.2	39.3	36.9
		소계	93.7	94.4	94.2	91.6	93.6	94.0	92.2
	외국계		6.3	5.6	5.8	8.4	6.4	6.0	7.8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8)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China Life, Pingan Life, CPIC Life, New China Life, Taikang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1.6%, 16.2%, 7.7%, 5.2%, 4.7%임(2017년 2/4분기 기준)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²⁹⁾〉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45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함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 확대는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2〉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2,154	2,148	2,069	2,354	8,724	2,402	2,450
	증가율 ²⁾	8.9	5.3	9.3	13.0	9.1	11.5	14.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15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함

〈표 23〉 손해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1,076	1,090	1,156	1,405	4,726	1,135	1,159
	증가율 ²⁾	17.6	18.4	9.3	7.9	12.7	5.5	6.4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9)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지급률〉

■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전분기와 같은 47.3%로 나타남

〈표 24〉 손해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49.9	50.7	55.9	59.7	54.2	47.3	47.3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7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2%p 하락한 98.0%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전분기 1.8%에서 2.0%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³⁰⁾의 시장점유율은 63.0%로 전분기에 비해 0.9%p 하락하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Groupama AVIC, AIG China인 것으로 조사됨

〈표 25〉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5	62.7	63.4	62.1	63.1	63.9	63.0
		중·소형사 ³⁾	33.6	35.2	34.5	35.8	34.9	34.3	35.0
		소계	98.1	97.9	98.0	97.9	98.0	98.2	98.0
	외국계		1.9	2.1	2.0	2.1	2.0	1.8	2.0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0)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PICC P&C, Ping An P&C, CIPC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4.4%, 18.9%, 9.8%임(2017년 2/4분기 기준)

라. 연금보험³¹⁾

- 2017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8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5.0% 증가하였으며, 누적 운용보험료는 5,647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4.7% 증가함
- 2017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 증가세 확대는 2016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6〉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수탁보험료 ²⁾	금액	264	214	204	260	942	272	289
	증가율 ²⁾	3.2	-13.6	22.8	27.2	7.8	3.0	35.0
누적 운용보험료	금액	4,323	4,545	4,855	5,167	5,167	5,394	5,647
	증가율 ³⁾	3.7	5.1	6.8	6.4	23.9	4.4	4.7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1) 이는 2004년 5월 기업연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금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기업연금보험을 의미하며, 현재 기업연금보험을 취급하는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런쇼우, 장장, 타이강 등이 있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통계표

〈부록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3.0	3.2	2.9	3.4	2.6	2.4	2.9	2.7
경상수지 ³⁾		28,246	27,520	25,350	26,337	21,510	25,481	19,431	16,835
수출 ⁴⁾		133,550	135,818	118,316	128,243	127,558	137,658	138,937	142,980
수입 ⁴⁾		102,231	103,051	89,362	94,709	99,290	107,969	110,956	112,616
실업률		3.4	3.1	4.3	3.8	3.6	3.2	4.3	3.9
금리	국고채(3년)	1.72	1.70	1.53	1.42	1.26	1.55	1.67	1.68
	회사채(3년)	1.98	2.07	2.01	1.88	1.67	1.99	2.15	2.21
소비자물가지수 ⁵⁾		100.24	100.08	100.59	100.78	100.97	101.54	102.66	102.71
환율	원/달러	1,167.80	1,157.69	1,201.44	1,163.30	1,121.37	1,157.37	1,154.28	1,129.43
	원/엔화	955.75	953.07	1,042.81	1,076.07	1,095.01	1,058.43	1,015.23	1,017.32
KOSPI		1,983.39	1,999.03	1,926.92	1979.91	2,026.89	2,012.29	2,094.94	2,279.26
외환보유고		368,114	367,962	369,840	369,890	377,770	371,102	375,302	380,568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3)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수지를 모두 합한 값임

4) 상품 수출 및 수입을 의미함

5) 2015=100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수입보험료	53,563 (-12.4)	52,363 (-14.6)	51,308 (-16.5)	214,279 (-13.2)	54,189 (-5.0)	48,844 (-8.8)
	초회보험료 ²⁾	8,542 (-44.0)	7,872 (-47.8)	6,510 (-54.3)	34,489 (-44.5)	10,219 (-11.6)	5,001 (-41.5)
	계속보험료	45,021 (-1.9)	44,491 (-3.8)	44,799 (-5.2)	179,790 (-2.6)	43,970 (-3.3)	43,844 (-2.6)
사망	수입보험료	95,863 (8.4)	96,798 (6.9)	97,454 (5.5)	386,607 (7.3)	99,001 (2.6)	100,051 (4.4)
	초회보험료	4,252 (5.9)	4,082 (-23.6)	3,323 (-25.8)	19,126 (-5.7)	3,897 (-47.8)	3,574 (-15.9)
	계속보험료	91,611 (8.5)	92,716 (8.8)	94,132 (7.1)	367,480 (8.1)	95,103 (6.8)	96,477 (5.3)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56,050 (4.8)	56,533 (10.5)	49,312 (-13.8)	228,294 (6.8)	58,554 (-11.9)	50,646 (-9.6)
	초회보험료	13,059 (20.8)	12,424 (42.5)	7,560 (-37.1)	55,353 (28.2)	16,753 (-24.9)	10,786 (-17.4)
	계속보험료	42,990 (0.7)	44,109 (3.9)	41,752 (-7.6)	172,941 (1.4)	41,801 (-5.2)	39,860 (7.3)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48,052 (-10.2)	49,786 (-5.4)	47,993 (-2.3)	194,062 (-6.0)	49,794 (3.2)	47,414 (-1.3)
	초회보험료	2,624 (-33.5)	4,380 (5.1)	3,660 (54.0)	12,815 (-0.1)	5,455 (153.5)	2,972 (13.3)
	계속보험료	45,428 (-8.4)	45,406 (-6.3)	44,333 (-5.2)	181,247 (-6.4)	44,339 (-3.8)	44,443 (-2.2)
개 인 계	수입보험료	253,528 (-1.2)	255,479 (-0.1)	246,068 (-5.4)	1,023,242 (-0.4)	261,538 (-2.5)	246,956 (-2.6)
	초회보험료	28,477 (-16.3)	28,757 (-13.7)	21,053 (-36.4)	121,784 (-12.0)	36,325 (-16.5)	22,332 (-21.6)
	계속보험료	225,051 (1.1)	226,722 (2.0)	225,016 (-0.9)	901,458 (1.4)	225,214 (0.2)	224,623 (-0.2)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1,902 (-0.2)	1,794 (-4.5)	1,803 (-2.3)	7,619 (-1.5)	2,149 (1.4)	1,923 (1.1)
	초회보험료	306 (18.3)	258 (-10.6)	260 (2.1)	1,375 (7.4)	598 (8.4)	350 (14.5)
	계속보험료	1,597 (-3.1)	1,536 (-3.4)	1,543 (-3.0)	6,243 (-3.3)	1,551 (-1.1)	1,573 (-1.5)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27,852 (39.3)	16,027 (13.7)	103,725 (19.7)	167,252 (22.1)	22,326 (13.6)	25,112 (-9.8)
	초회보험료	5,094 (29.8)	3,295 (-23.7)	18,752 (-35.0)	31,542 (-27.4)	4,949 (12.5)	5,357 (5.2)
	계속보험료	22,758 (41.7)	12,731 (30.1)	84,973 (47.1)	135,710 (45.1)	17,378 (14.0)	19,755 (-13.2)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29,755 (35.9)	17,821 (11.5)	105,529 (19.3)	174,871 (20.8)	24,475 (12.4)	27,035 (-9.1)
	초회보험료	5,400 (29.1)	3,553 (-22.9)	19,012 (-34.7)	32,917 (-26.4)	5,547 (12.0)	5,707 (5.7)
	계속보험료	24,355 (37.5)	14,267 (25.5)	86,516 (45.8)	141,954 (41.9)	18,928 (12.6)	21,328 (-12.4)
합계	수입보험료	283,283 (1.7)	273,300 (0.6)	351,597 (0.9)	1,198,112 (2.2)	286,014 (-1.4)	273,991 (-3.3)
	초회보험료	33,877 (-11.3)	32,311 (-14.8)	40,065 (-35.6)	154,701 (-15.5)	41,872 (-13.6)	28,039 (-17.2)
	계속보험료	249,406 (3.8)	240,989 (3.1)	311,532 (8.8)	1,043,411 (5.5)	244,142 (1.1)	245,951 (-1.4)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1,2)}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7,199	37,752	40,896	152,904	41,674	39,617
	증가율	7.7	6.1	7.2	7.6	12.5	6.5
	지급률	69.4	72.1	79.7	71.4	76.9	81.1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5,866	46,046	47,027	186,024	50,858	48,433
	증가율	8.3	8.6	5.8	6.8	8.0	5.6
	지급률	47.8	47.6	48.3	48.1	51.4	48.4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31,452	31,724	33,525	128,539	39,617	35,953
	증가율	6.0	14.5	21.5	9.2	24.4	14.3
	지급률	56.1	56.1	68.0	56.3	67.7	71.0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5,077	37,052	34,358	136,299	37,489	36,414
	증가율	-5.7	26.0	11.4	4.3	25.7	3.8
	지급률	73.0	74.4	71.6	70.2	75.3	76.8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49,594	152,574	155,806	603,766	169,637	160,417
	증가율	4.0	12.9	10.5	6.9	16.4	7.2
	지급률	59.0	59.7	63.3	59.0	64.9	65.0
일반 단체	지급보험금	2,030	2,025	1,897	8,269	1,930	1,949
	증가율	-9.5	-1.0	-11.2	-6.6	-16.7	-4.0
	지급률	106.7	112.9	105.2	108.5	89.8	101.4
퇴직 연금	지급보험금	17,432	16,925	48,822	104,799	27,192	23,224
	증가율	-5.2	29.4	12.6	8.9	25.8	33.2
	지급률	62.6	105.6	47.1	62.7	121.8	92.5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9,462	18,950	50,720	113,068	29,121	25,173
	증가율	-5.7	25.3	11.4	7.6	21.7	29.3
	지급률	65.4	106.3	48.1	64.7	119.0	93.1
전체	지급보험금	169,056	171,524	206,526	716,834	198,759	185,589
	증가율	2.8	14.2	10.7	7.0	17.1	9.8
	지급률	59.7	62.8	58.7	59.8	69.5	67.7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1),2),3),4)}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	사업비	6,237	5,944	6,070	24,695	7,547	7,113
	증가율	-18.2	-20.0	-19.0	-18.9	17.1	14.0
	사업비율	11.6	11.4	11.8	11.5	13.9	14.6
사망 보험	사업비	27,238	27,924	29,970	112,460	27,840	27,706
	증가율	6.4	5.3	5.4	6.3	1.9	1.7
	사업비율	28.4	28.8	30.8	29.1	28.1	27.7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3,430	3,392	3,321	13,863	4,266	3,954
	증가율	-13.8	-10.7	-15.6	-12.3	14.6	15.3
	사업비율	6.1	6.0	6.7	6.1	7.3	7.8
개인 보험계	사업비	36,905	37,260	39,361	151,018	39,653	38,773
	증가율	-0.8	-1.3	-1.2	-0.7	5.8	5.1
	사업비율	14.6	14.6	16.0	14.8	15.2	15.7
단체 보험계	사업비	1,003	1,037	1,068	4,071	996	964
	증가율	4.7	5.8	0.7	2.2	3.4	-3.8
	사업비율	3.4	5.8	1.0	2.3	4.1	3.6
전체	사업비	37,908	38,297	40,428	155,090	40,649	39,738
	증가율	-0.7	-1.1	-1.2	-0.6	5.7	4.8
	사업비율	13.4	14.0	11.5	12.9	14.2	14.5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5〉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¹⁾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733	693	865	3,011	703	710
	증가율	-0.5	1.4	-3.1	-1.0	-2.3	-3.1
	구성비	0.4	0.4	0.4	0.4	0.3	0.3
해상	보험료	1,678	1,567	1,328	6,080	1,656	1,633
	증가율	-8.7	-13.9	-14.5	-14.3	9.9	-2.7
	구성비	0.8	0.8	0.5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41,387	41,133	42,151	164,053	42,174	42,995
	증가율	11.1	10.1	5.4	9.4	7.1	3.9
	구성비	20.2	20.9	17.2	20.4	20.5	20.5
보증	보험료	4,017	3,787	4,221	15,909	4,166	4,294
	증가율	-0.9	2.0	1.7	0.6	7.3	6.9
	구성비	2.0	1.9	1.7	2.0	2.0	2.0
특종 ²⁾	보험료	14,785	12,053	13,736	54,677	14,679	15,921
	증가율	8.3	4.5	5.0	5.9	4.1	7.7
	구성비	7.2	6.1	5.6	6.8	7.1	7.6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29	1,531	1,176	5,355	1,061	1,131
	증가율	18.5	-1.7	-16.7	0.9	-19.5	-14.9
	구성비	0.6	0.8	0.5	0.7	0.5	0.5
장기 손해	보험료	118,954	120,179	120,725	477,727	122,565	122,206
	증가율	2.9	3.1	3.1	2.6	4.0	2.7
	구성비	58.0	61.0	49.3	59.5	59.6	58.3
개인 연금	보험료	9,696	9,599	9,676	38,768	9,377	9,255
	증가율	-3.2	-4.0	-4.5	-3.6	-4.3	-4.5
	구성비	4.7	4.9	3.9	4.8	4.6	4.4
퇴직 연금	보험료	12,571	6,347	51,247	79,392	9,335	11,603
	증가율	60.3	12.6	28.4	24.7	1.2	-7.7
	구성비	0.0	3.2	20.9	9.9	4.5	5.5
계	보험료	205,152	196,890	245,126	844,972	205,715	209,748
	증가율	6.8	4.3	7.4	5.3	4.0	2.2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1),2)}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1.9	43.5	70.5	41.1	54.0
	사업비율	43.8	43.8	40.4	49.1	46.5
	합산비율	95.7	87.3	110.9	90.2	100.5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35.5	42.8	168.3	42.9	81.1
	사업비율	29.0	35.1	41.0	32.1	27.9
	합산비율	64.5	77.9	209.3	75.0	109.1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7.5	53.6	38.7	56.6	38.2
	사업비율	18.8	17.7	21.0	15.7	18.1
	합산비율	66.3	71.3	59.8	72.3	56.3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70.1	64.2	68.6	66.5	65.6
	사업비율	15.5	19.5	20.9	19.1	17.2
	합산비율	85.6	83.7	89.5	85.6	82.8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85.8	105.8	171.1	90.6	79.3
	사업비율	52.4	37.3	73.5	62.4	50.7
	합산비율	138.2	143.1	244.6	153.0	130.1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6.0	39.6	110.1	44.6	62.6
	사업비율	33.0	32.2	27.9	32.1	29.8
	합산비율	99.0	71.8	138.0	76.7	92.4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2.1	79.8	87.8	78.0	77.5
	사업비율	18.4	18.5	18.3	18.7	18.6
	합산비율	100.5	98.4	106.1	96.7	96.0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³⁾	84.1	83.9	83.8	83.9	82.2
	사업비율	19.0	19.3	20.7	20.4	20.1
	합산비율	103.1	103.2	104.5	104.2	102.3
전체	경과손해율	81.3	79.9	83.8	79.9	78.7
	사업비율	19.2	19.6	20.7	20.3	19.9
	합산비율	100.5	99.5	104.5	100.3	98.6

주: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정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정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운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 | |
|-------|---|
| 제 9 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 제10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 제11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 제12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 CEO Report_____

- | | |
|--------|---|
| 2008-1 |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 2008-2 |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 2008-3 |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 2008-4 |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 2009-1 |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 2009-2 |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 2009-3 |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 2009-4 |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 2010-1 |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 2010-2 |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 2010-3 |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 2010-4 |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 2010-5 |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 2010-6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 2011-1 |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 2011-2 |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 2011-3 |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 2011-4 |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 2012-1 |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 2012-2 |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 2012-3 |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 2012-4 |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 2013-1 |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7년 가을호 (통권 83호)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